濟州島硏究 제13집(1996), pp. 97~176

제주도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전경수 · 한상복

요 약

본 연구는 제주도 농어촌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밝히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작용되었다고 생각되는 지역개발의 제요인에 관해서 고찰하는 것을 일반적인 목적으로 한다.

1) 1950년 실시되었던 제주도 종합학술조사의 일환으로 수집된 사회조사표(미분석, 미발표)를 분석하여 1950년대의 제주도 농어촌 지역사회의 성격을 밝힌다. 2) 1989년에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과거와 동일한 사회조사표에 의한 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1980년대의 제주도 농어촌 지역사회의 성격을 밝힌다. 3) 약 삼십년 동안의 변화과정에서 주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 농어촌지역사회 변화의 내적 동인과 외적 동인을 밝힌다.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변화의 연구는 과거에 시행된 제주도 농어촌 발전의 평가를 위해서는 물론, 미래의 농어촌개발을 계획하기 위해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의 농어촌 지역이다. 실증적인 연구를 위하여 설정된 곳은 山南지역인 서귀포시 월평리와 山北지역인 애월읍 금성리이다.

1989년에 실시된 우리의 연구는 질문지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었다. 1959년도의 설문지와 비교를 통해서 30년 동안의 변화를 보기 위한 것이 이 논문의 주

서울대 교수·인류학

* 이 연구는 1992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포철연구비)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이다. 본 연구를 도와준 김창민·오석민선생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특히 김창민 박사는 이 연구의 분석과정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해 주었다.

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양화된 자료를 가급적 그대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30년동안에 일어난 제주 농촌의 변화를 주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구는 소규모화 되었고, 가족관계는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혼인의 경우 대체로 만혼의 경향을 보이면서, 딸(여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향이 남자보다도 더 두드러지는 변화상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경제적인 여건은 좋아졌다는 주민 스스로의 인식과 지표상의 변화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농가의 자립도는 상당히 떨어졌다는 점이 지적된다. 즉 농가의 자립적인 경제활동은 이제 완벽하게 시장경제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황이고, 농업의 상업화에 의한 적응전략이 농민들에 의해서 강도높게 추진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적응전략 자체가 국가 주도의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친족조직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소원한 면은 있지만, 제사라는 것이 친족(특히 가까운 친족들)간의 중요한 결속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제주도의 농촌에서 나타난 기술부문의 변화 즉 농업기술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환금작물이 도입되었고 영농방식이 기계화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조직부문에서 보이는 변화는 가족의 크기가 소인수화 되었고, 근린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계가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동네라는 사회조직 자체가 외부와의 접촉이 빈번해진 것도 조직 측면의 큰 변화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관념부문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판단이 선다. 특히 기술이나 조직의 변화와 비교해 볼 때, 관념부문의 변화는 극히 미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문화변동에 있어서 관념부문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일반론을 적용할 수 있고, 문화변동에 있어서 부문별 층화현상을 지적할 수도 있다. 제주도 농촌에서 일어난 문화변동의 부문별 층화현상을 일별하면, 기술부문의 변화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조직, 그리고 관념부문은 변화의 정도가 극히 적었다. 변동의 속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부문별 층화현상은 보편적인 추세가 아닐까 한다.

지난 30년간 일어난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가늠해 볼 때, 우리는 미래를 위한 약간의 실용적인 제안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차세대의 정주를 위한 기반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가 미래설계의 관건이다. 농민들은 항상 경제적인 합리성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고, 가구단위의 정주가능성과 경제적 경쟁력의 확보라는 문제가 농민들의 가장 심각한 관심이다. 일차산업의 회복가능성, 일차와 이차 및 삼차 산업의 복합에 의한 인구부양능력의 제고 등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주계획의 일환일 수 있다.

Ⅰ. 서론 : 연구의 목적과 과정

본 연구는 제주도 농어촌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밝히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작용되었다고 생각되는 지역개발의 제요인에 관해서 고찰하는 것을 일반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 때 변화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변동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분명한 두 가지 다른 시간대에 근거해야 한다. 동일지역에서 발견되는 서로 다른 시간대의 사회현상을 비교분석함에 의하여 그 지역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상기의 일반적 목적과 기본구상을 실증적인 자료에 의하여 논증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다.

1) 1959년 실시되었던 제주도 종합학술조사의 일환으로 수집된 사회조사표(미분석, 미발표)를 분석하여 1950년대의 제주도 농어촌 지역사회의 성격을 밝힌다. 2) 1989년에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과거와 동일한 사회조사표에 의한 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1980년대의 제주도 농어촌 지역사회의 성격을 밝힌다. 3) 약 삼십년 동안의 변화과정에서 주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 농어촌지역사회 변화의 내적 동인과 외적 동인을 밝힌다.

이와 같은 특정지역의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변화의 연구는 과거에 시행된 제주도 농어촌 발전의 평가를 위해서는 물론, 미래의 농어촌개발을 계획하기 위해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의 농어촌 지역이다. 실증적인 연구를 위하여 설정된 곳은 山南지역인 서귀포시 월평리와 山北지역인 애월읍 금성리이다. 이 두 지역은 전형적인 제주도의 농어촌 지역으로서 1959년에 한국지역사회학술조사기구에 의해서 추진되었고 당시 아세아재단이 재정후원을 담당했던 "제주도 종합학술조사"의 표본 연구지역이었다. 당시 15개 전문분야에 걸쳐서 71명의 조사단원이 참가했었으나 불행하게도 종합조사보고서가 출간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자 중 1명은 33년전 당시 연구보조원의 자격으로 조사에 참가했으며, 현재 그 당시의 애월면 금성리와 서귀포시 월평리에 대한 사회

조사표를 미분석상태로 보관하고 있다(한상복 1984 참조).

따라서 양 지역에 대한 1959년의 조사를 기초로 하여 1989년에 동일한 내용의 사회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통시적인 의미에서 지역사회의 성격을 밝히고 그 사회의 변동상황을 알게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아래와 같다.

1) 1959년 월평리와 금성리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사회조사표(조사표의 내용은 별지Ⅰ로 첨부함)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시행한다. 이것은 1950년대 당시의 제주도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1989년에 과거와 동일한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조사표를 만들어서 동일지역에서 조사를 실시한다(조사표를 별지Ⅱ로 첨부함). 이것은 1980년대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상황을 통계분석에 의해서 알게 한다. 3) 1959년도의 통계적 분석자료와 1989년도의 통계적 분석자료를 직접 비교함으로써 이 지역사회의 변화추세를 실증적으로 파악한다. 4) 그동안 실시되었던 제주도 지역개발에 관한 각종 연구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제주도 농촌과 어촌의 구조적 성격과 지역사회의 변화과정을 몇십년이란 구체적인 시간선상에서 밝힌다. 지역사회의 구조적 성격에 포함되는 개괄적인 항목들은 인구, 가족 및 혼인관계, 경제상태 및 직업구조, 각종 형태의 가치관, 사회조직, 소규모의 지역정치, 대중매체 등이다.

종래의 제주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들은 단일지역사회에 대한 일 시점의 현상분석에 그침으로서 상이한 시점에서 상이한 지역사회에 대한 비교분석의 노력이 결핍되어 있었고, 지역사회의 변화과정에 관련된 지역개발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도 내의 상이한 두 지역단위가 지난 수십년동안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하는 것을 밝혀보려는 것이다. 한 지역사회에 대한 변화과정을 밝힌다는 것은 지역개발과 사회변동을 논하고자 하는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희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낳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가 가능한 것은 30년전의 경험적인 조사자료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사회 자체의 성격에 의한 과거의 변동추세 및 약

반세기동안 이 지역사회에 개입되었다고 생각되는 여러가지 형태의 외부적인 영향을 파악해낸다는 것은 앞으로의 지역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1959년도에 적용되었던 설문지 조사방법으로 인해서 1989년도에 동일한 형태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지 조사방법을 적용하였다. 물론 1959년도에 작성되었던 설문지들의 내용중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두 시기간의 비교가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의 확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설문지를 적용하였다. 1959년도에 동원되었던 큰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구의 상황, 가족관계와 혼인관계, 경제현상, 친족조직, 지역사회, 기타 등이다. 기타의 난에 들어간 소제목들은 묘지기 유무, 아들의 교육가능, 딸의 교육가능, 시장이용자, 지위의 지표, 신문/잡지 구독여부다. 기타 항목들은 위의 다른 항목들과 연계된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할 부분들이다.

사회변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현재에서 바라본 과거의 상태에 그것을 현상태와의 직접비교에 의해서 사회변동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는 과거의 일정시점과 현재라는 일정시점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려는 것이 소위 再訪問에 의한 長期連續 事例硏究(longitudinal case study)이다(Foster 1979 참조). 이러한 정신에 의해서 기왕에 실시된 사례연구들이 본 연구가 의존해야 할 지침들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범이 될만한 사례연구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찐쭌짠(멕시코) : 1944년 시작하여 1975년 종료시까지(31년간) 2회 방문하여 총 30개월동안 현지체류(연구자 Foster), 2) 꿍(보츠와나) : 1963년 시작하여 1973년 종료시까지(10년간) 3회 방문하여 총 38개월동안 현지체류(연구자 Lee), 3) 비꼬(페루) : 1950년 시작하여 1975년 종료시까지(24년간) 10회이상 방문하여 총 32개월동안 현지체류(연구자 Mangin), 4) 짠꼼(멕시코) : 1930년 시작하여 1975년 종료시까지(45년간) 6회 방문하여 총 100개월

현지체류(연구자 Villa Rojas), 5) 찌나깐딴(멕시코) : 1957년 시작하여 1974년 종료시까지(17년간) 10회 이상 방문하여 총 50개월동안 현지체류(연구자 Vogt), 6) 이끼(일본) : 1964년 시작하여 1974년 종료시까지(10년간) 수회에 걸쳐 방문함(연구자 요시다), 7) 경기도 광주 및 이천(한국): 1958년 시작하여 1969년 종료시까지(11년간) 2회 방문함(연구자 이만갑).

제주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동향을 보면, 1960년대 농촌지도사업이 전개되고 있을 때, 개발과정에 있는 시범농촌마을에 관한 사례연구가 있다. 1970년대에는 사회과학자들에 의한 해촌마을연구와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한 지역사회개발의 성격이나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1980년대에는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지역개발이 제주지역사회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에 대한 평가적인 연구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제주지역사회에 관한 연구들은 모두 시간이라는 변수를 연구의 중요한 축으로 고려하지 못하였거나 경험적인 연구의 성격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연구들이 안고 있는 이러한 결점들을 보완한 실증적인 연구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본 연구대상지역의 일반적인 民俗誌的 狀況과 地域開發事業에 관한 논문들을 1990년과 1991년에 각각 발표한 바 있다(전경수·한상복 1990 & 1991 참조).

Ⅱ. 본론 : 자료의 분석내용

1959년도와 1989년도의 두 시기에 적용된 자료이기 때문에, 본론에서 표시하는 59라는 것은 1959년도를 말하고 89라는 것은 1989년도를 지칭한다. 그리고 59 금성이라고 표시한 것은 1959년도의 금성 자료라는 의미이고, 89 월평이라고 한것은 1989년도 월평의 자료라는 뜻이다. 1959년 조사(survey)에서는 금성 뿐만 아니라 월평과

구좌면의 동복리, 표선면의 토산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조사된 사례의 수가 각각 24사례, 13사례, 13사례에 불과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1959년 자료로는 금성만 선택하였고, 1989년에는 금성과 월평만 조사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제주마을의 상황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비교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즉, 시간적 비교를 위해서는 1959년의 금성과 1989년의 금성을 비교할 수 밖에 없으며, 공간적 비교를 위해서는 1989년의 금성과 1989년의 월평을 비교하는 절차에 제한될 수 밖에 없다.

1. 응답자에 관한 일반적 사항

이 조사의 응답자는 59 금성이 138명, 89 금성이 132명, 89 월평이 106명이다.

1) 응답자의 性

	남 자	여 자	계
59 금성	86 (62.3%)	52 (37.7%)	138 (100%)
89 금성	59(44.7%)	73 (55.3%)	132 (100%)
89 월평	56 (52.8%)	50 (47.2%)	106 (100%)

이 조사는 처음부터 조사자와 응답자의 연령과 성을 통제하지 않았다. 1959년에도 1989년에도 동일하였다. 질문에 따라서는 응답자의 성차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읽는데 있어서 성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9 금성 자료에서는 남성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89 금성 자료에서는 여성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89 월평 자료에서는 비교적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응답자의 성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

다. 주로 남자가 많은 것은 질문자가 모두 남자였다는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1989년에 응답자로서 여자가 많이 등장한 것은 여성이 가족의 대외적인 발언권이 켜졌다는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즉 50년대에 비해서 80년대에는 여성이 가족의 대변인 역할에 상당부분 등장하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내외법의 약화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2) 응답자의 나이

	0-9세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무응답	계
59금성	1 (07.%)	2 (1.4%)	10 (7.2%)	24 (17.4%)	21 (15.2%)	39 (28.3%)	25 (18.1%)	14 (10.1%)	2 (1.4%)	138 (100%)
89금성	0 (0%)	1 (0.8%)	10 (7.6%)	10 (7.6%)	21 (15.9%)	28 (21.2%)	31 (23.5%)	31 (23.5%)	0 (0%)	132 (100%)
89월평	0 (0%)	0 (0%)	9 (8.5%)	24 (22.6%)	18 (17.0%)	24 (22.6%)	16 (15.1%)	15 (14.2%)	0 (0%)	106 (28.2%)

응답자의 나이를 보면, 59금성과 89월평은 50대 응답자가 가장 많은 표준분포곡선을 이루고 있으나, 89금성의 경우는 나이가 많을수록 응답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89금성의 인구구성에서 노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암시한다. 59금성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경제개발계획이 아직 시작되기 전이며, 89월평은 밀감농사와 하우스 농업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이촌현상이 적게 일어났다. 즉, 89금성의 경우는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이촌현상이 일어나 젊은 층의 수가 적은 반면, 59 금성과 89월평에는 이촌현상이 적어 젊은 층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응답자의 연령이 응답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별도로 설명 하고자 한다.

3) 응답자의 교육정도

	무 학	한문해독	국 졸	중 졸	고 졸	대졸이상	무응답	계
59 금성	64 (46.4%)	19 (13.8%)	24 (17.4%)	11 (8.0%)	7 (5.1%)	4 (2.9%)	9 (6.5%)	138
89 금성	44 (33.3%)	2 (1.5%)	35 (26.5%)	21 (15.9%)	23 (17.4%)	5 (3.8%)	2 (1.5%)	132
89 월평	26 (24.5%)	3 (2.8%)	19 (17.9%)	20 (18.9%)	32 (30.2%)	4 (3.8%)	2 (1.9%)	106

59 금성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았다. 이는 50년대와 80년대 상황을 비교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두 시기 사이의 응답 차이가 단순히 시대상의 차이가 아니라 교육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이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59 금성의 경우는 무학이 가장 많은 반면, 89년 금성은 무학과 국졸이 가장 많으며, 89 월평은 고졸이 가장 많았다. 즉, 교육수준을 보면 89 월평이 가장 높고, 다음이 89년 금성이며, 59 금성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9 금성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응답자의 연령변수가 일정부분 간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89 금성의 경우 학력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응답자의 연령이 월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응답자의 종교

	불 교	유 교	기독교	무 속	기 타	종교 없음	무응답	계
59 금성	13 (9.4%)	1 (0.7%)	7 (5.2%)	0 (0%)	0 (0%)	95 (68.8%)	22 (15.9%)	138
89 금성	45 (34.1%)	2 (1.5%)	6 (4.5%)	3 (2.3%)	1 (0.8%)	74 (56.1%)	1 (0.8%)	132
89 월평	60 (56.6%)	0 (0%)	6 (5.7%)	0 (0%)	2 (1.9%)	38 (35.8%)	0 (0%)	106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종교가 있을 경우

응답자들의 종교는 대부분 불교였다. 상대적으로 89 월평 자료에서는 불교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두 마을 모두 유교라고 응답한 비율이나 기독교라고 응답한 비율은 미미하였다. 기독교는 육지부에서 전래되었고 육지사람들이 주로 믿는 종교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불교는 가장 친숙한 종교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월평의 경우 인근에 法華寺나 藥泉寺와 같은 규모가 큰 사찰이 있어 불교에 친숙한 경향을 보인다.

종교없음이라는 범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때 종교라고 한 것은 기성종단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제한적인 의미다. 두 마을내에서 전통적인 신앙행위는 여러가지로 관행되고 있는 현장이 관찰되었다.

5) 응답자의 가족내 위치(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처	아들	딸	동거인	어머니	무응답	계
59 금성	107 (77.5%)	15 (10.9%)	9 (6.5%)	2 (1.4%)	0 (0%)	3 (2.2%)	3 (1.4%)	138
89 금성	91 (68.9%)	29 (22.0%)	6 (4.5%)	4 (3.0%)	2 (1.5%)	0 (0%)	0 (0%)	132
89 월평	70 (66.0%)	25 (23.6%)	7 (6.6%)	2 (1.9%)	1 (0.9%)	1 (0.9%)	0 (0%)	106

응답자들은 대부분 세대주였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의 처였다. 이는 비교적 응답자의 가구내 위치가 일관된 것으로서 자료의 신뢰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질문자가 남자인데 대한 반응으로서 세대주인 남편이 주 응답자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 처의 등장은 대리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의 性란과 비교할 때, 여성세대주도 상당수 있다고 판단되고, 1인 가구도 적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2. 가구의 상황

가구라는 단위를 설정한 의도는 마을의 일상생활을 관찰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가구라고 보기 때문이다. 가구라는 것은 반드시 혈연단위인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의 범위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만, 분석단위로서는 확연한 차별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잠정적으로 가구란, 동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생활의 단위라고 말할 수 있다.

1) 가구원의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이상	무응답	계
59금성	9 (6.5%)	15 (10.9%)	23 (16.7%)	25 (18.1%)	24 (17.4%)	8 (5.8%)	13 (9.4%)	12 (8.7%)	9 (6.5%)	138
89금성	30 (22.7%)	37 (28.0%)	14 (10.6%)	21 (15.9%)	18 (13.6%)	10 (7.6%)	2 (1.5%)	0 (0%)	0 (0%)	132
89금성	11 (10.4%)	12 (11.3%)	15 (14.2%)	20 (18.9%)	24 (22.6%)	14 (13.2%)	9 (8.5%)	1 (0.9%)	0 (0%)	106

59 금성의 경우 가구원 수는 3인에서 5인까지가 많았다. 그러나 6명 이상의 가구도 24% 정도나 되어 가구원수가 89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녀의 수가 89년에 비해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한편 89 금성의 자료는 1인 또는 부부 가구가 절반 이상이나 되고 3인에서 5인 사이도 40% 정도나 되어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절대적으로 줄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이촌현상이 나타났음을 나타낸다. 실제 금성의 경우는 上洞을 중심으로 이촌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 지금은 대부분의 가구가 1인 또는 2인 가구이다. 다만 下洞의 경우는 취약한 경제적 기반으로 인하여 외지로의 이출이 원만하지 못하였고 어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상당수 남아 있어 핵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다.

상대적으로 89 월평은 3인에서 6인까지의 가구가 많이 있다. 월평마을의 가구는 대부분 핵가족으로서 부부와 그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월평마을은 1970년대 이후 밀감농사와 하우스 농사로 젊

은이들이 외지로 나가기 보다 마을에서 영농을 하는 경우가 많아 1인 가구나 부부 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대체적으로 가구원의 숫자가 소인수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향이다. 거주지내에 일거리 유무가 가구원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89 월평의 경우, 하우스 화훼업이 젊은층을 마을내에 체류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인구과소화에 있어서 무작정 향도이촌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지역별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생활의 특성화 현상이 밑바닥에 깔린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동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가구원의 숫자로 반영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동거 자녀의 수

	없다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상	무응답	계
59 금성	23 (16.7%)	31 (22.5%)	25 (18.1%)	21 (15.2%)	7 (5.1%)	16 (11.6%)	14 (10.1%)	1 (0.7%)	138
89 금성	60 (45.5%)	17 (12.9%)	23 (17.4%)	21 (15.9%)	10 (7.6%)	1 (0.8%)	0	0	132
89 월평	21 (19.8%)	19 (17.9%)	27 (25.5%)	25 (23.6%)	12 (11.3%)	2 (1.9%)	0	0	106

59 금성과 89 월평은 동거자녀의 수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반면, 89 금성은 상이한 특성을 보였다. 즉, 89년 금성의 경우 동거자녀가 없는 가구는 45.5%나 되었다. 이는 1인 가구 또는 부부 가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과도 연관되어 있다. 89 금성은 그만큼 인구가 노령화되어 동거할 수 있는 미혼자녀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59 금성과 89 월평의 경우는 1명 이상의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80%를 넘어 가구주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나타내고 있다.

3) 외지 거주 가구원의 수

	없 다	1 명	2 명	3 명	4 명	5명이상	계
59 금성	54(39.1%)	48(34.8%)	20(14.5%)	8(5.8%)	4(2.9%)	4(2.9%)	138
89 금성	86(64.6%)	26(19.7%)	11(8.3%)	7(5.3%)	1(0.8%)	2(1.5%)	132
89 월평	67(63.2%)	21(19.8%)	16(15.1%)	2(1.9%)	0	0	106

59 금성의 경우는 약 39%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자녀 중 한명 이상을 외지에 두고 있었다. 이는 이 당시에 이미 이촌현상이 상당히 심하였음을 나타낸다. 반면 89 금성에서는 64.4%의 가구가 자녀를 한명도 외지에 보내지 않고 있었다. 이는 이미 금성마을의 인구가 노령화되어 외지로 보낼 미혼자녀들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89년의 월평에서도 외지로 자녀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적었는데 이는 가구주들이 젊어 자녀들이 외지로 나갈 시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월평마을에서 외지로 나간 가구원들은 대부분 교육의 필요성 때문이다.

89 금성은 전반적인 人口過疏化의 추세를 잘 따라가고 있지만 89 월평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은 농민들의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적응양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한 지역별 특성화 현상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변화의 동인을 밝힘에 있어서 농민 자신들의 내적 문제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상기하게 해준다.

3. 가족관계와 혼인관계

1) 부모를 모시는 사람

	비해당	장남	차남이하	딸	별거	기타	무응답	계
59 금성	85(61.6%)	19(13.8%)	11(8.0%)	0	19(13.8%)	2(1.4%)	2(1.4%)	138
89 금성	85(65.2%)	11(8.3%)	6(4.5%)	0	28(21.2%)	0	1(0.8%)	132
89 월평	47(44.3%)	23(31.7%)	9(8.5%)	1(0.9%)	26(24.5%)	0	0	106

세 경우 모두 부모가 살아계시는 경우 차남 이하나 딸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적었고 장남과 함께 생활하거나, 아니면 별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제주도의 전통적인 분가제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남이 모신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안거리와 밖거리에 따로 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외가의 위치

	같은마을	면내타동	군내타면	도내타군	육 지	모르겠다	무응답	계
55 금성	36(26.1%)	58(42.0%)	26(18.8%)	6(4.3%)	1(0.7%)	1(0.7%)	10(7.2%)	138
89 금성	38(28.0%)	45(34.1%)	30(22.7%)	3(2.3%)	4(3.0%)	11(8.3%)	2(1.5%)	132
89 월평	25(23.6%)	48(45.3%)	13(12.3%)	4(3.8%)	3(2.8%)	4(3.8%)	9(8.5%)	106

세 경우 모두 마을내혼과 면내혼의 비중이 70%에 가까워 지역내혼의 성격이 강하였다. 특히 마을내혼의 성격이 강한 것은 제주도의 혼인에서 중요한 특징이다. 한편 육지에 외가를 두고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제주사람들이 육지사람과 혼인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음이 드러난다.

3) 결혼전 부인의 거주지

	비해당	같은마을	면내타군	군내타면	도내타군	육 지	일 본	무응답	계
59 금성	2 (1.4%)	41 (29.7%)	55 (39.9%)	33 (23.9%)	3 (2.2%)	2 (1.4%)	2 (1.4%)	0	138
89 금성	2 (1.5%)	33 (25.0%)	51 (38.6%)	24 (18.2%)	9 (6.8%)	9 (6.8%)	3 (2.3%)	1 (0.8%)	132
89 월평	6 (5.7%)	21 (19.8%)	50 (47.2%)	18 (17.0%)	5 (4.7%)	4 (3.8%)	2 (1.9%)	0	106

세 경우 모두 부인의 거주지가 같은 마을이거나 같은 면내에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59 금성과 89 금성을 시간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이런 경향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금성과 월평간에는 마을내혼의 비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금성의 경우는 마을내혼이 59년과 89년의 경우 각각 29.7%와 25%였으나 월평은 19.8%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었다. 이는 마을의 규모와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월평은 금성에 비해 가구수가 적은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내에서 배우자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월평마을에서는 면내 다른 마을에까지 통혼권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가의 위치와 마찬가지로 부인의 거주지가 육지인 경우는 아주 드문 편이었고, 일본인 경우도 드물게 있었다. 부인의 거주지가 일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일본에서 만나 결혼한 경우이다.

위의 몇가지 질문에 의해서 나온 결론은 혼인을 위한 배우자 선택이라는 점은 지난 3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배우자 선택의 지역적 보수성이 강하다는 표현이 가능하다.

4) 결혼시 소개자

	비해당	친척	친지	手册	행상인	연애	기타	모르겠다	무응답	계
59 금성	2 (1.4%)	93 (67.4%)	22 (15.9%)	5 (3.6%)	1 (0.7%)	5 (3.6%)	1 (0.7%)	7 (5.1%)	2 (1.4%)	138
89 금성	2 (1.5%)	77 (58.3%)	16 (12.1%)	3 (2.3%)	0	21 (15.9%)	5 (3.8%)	4 (3.0%)	4 (3.0%)	132
89 월평	6 (5.7%)	33 (31.1%)	39 (36.8%)	0	0	19 (17.9%)	0	5 (4.7%)	4 (3.8%)	106

59 금성의 경우 친척이 결혼 소개를 한 경우가 67.4%로 가장 많았다. 반면 연애결혼은 3.6%에 불과하여 중매결혼이 지배적이었음을 보여준다. 89 금성의 경우는 여전히 친척이 중매한 경우가 58.3%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89 월평에서는 친지가 중매한 경우가 36.8%로 가장 높았으며 친척이 중매한 경우는 31.1%에 불과하였다. 친지 중매율이 높은 것이 금성과 월평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연애결혼의 비율은 59년과 89년 사이에 차이를 보였다. 금성, 월평 할 것 없이 89년에는 연애결혼의 비율이 15.9%, 17.9%로 59년 자료보다 높았다. 이는 연애결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나타낸다.

5) 초혼 여부

세 경우 모두 부부가 모두 초혼인 경우가 78.3%, 87.9%, 82.1%

로 가장 높았다. 다만 재혼의 비율은 59년이 89년의 두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자가 초혼이면서 여자가 재혼인 경우는 아주 드물었으나, 남자가 재혼이면서 여자가 초혼인 경우는 간혹 있었다.

	비해당	남자초혼 여자초혼	남자초혼 여자재혼	남자 재혼 여자 초혼	남자 재혼 여자 재혼	무응답	계
59 금성	2(1.4%)	108(78.3%)	2(1.4%)	9(6.5%)	16(11.6%)	1(0.7%)	138
89 금성	2(1.5%)	116(87.9%)	0	2(1.5%)	12(9.1%)	0	132
89 금성	6(5.7%)	87(82.1%)	1(0.9%)	5(4.7%)	6(5.7%)	1(0.9%)	106

6) 초혼시 남자의 연령

	59 금성	89 금성	89 월평
비해당	2(1.4%)	2(1.5%)	6(5.7%)
15세이하	19(13.7%)	2(1.6%)	0
16~17세	20(14.5%)	8(6.1%)	2(1.8%)
18~19세	40(28.9%)	14(10.6%)	9(8.5%)
20~21세	27(19.5%)	14(10.6%)	17(16.0%)
22~23세	14(10.1%)	26(19.6%)	18(17.0%)
24~25세	3(2.1%)	14(10.6%)	13(12.3%)
26~27세	2(1.4%)	25(18.9%)	13(12.2%)
28~29세	2(1.4%)	13(9.8%)	15(14.1%)
30~31세	3(2.1%)	5(3.8%)	3(2.8%)
32~33세	3(2.1%)	0	4(3.8%)
34세이상	1(0.7%)	1(0.8%)	0
모르겠다	2(1.4%)	4(3.0%)	1(0.9%)
무응답	0	4(3.1%)	5(4.7%)
계	138	132	106

59 금성의 경우 남자의 초혼연령은 18－21세 사이가 48.4%로서 절반에 가까웠다. 그리고 17세 미만에 결혼한 사람도 28.2%나 되어 조혼의 경향이 있었다. 반면 89 금성이나 89 월평은 17세 미만이 각

각 7.7%, 1.8%에 불과하였으며, 18－21세에 결혼한 비율도 21.2%, 24.5%로서 59 금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89 금성의 경우는 26－27세에 결혼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89 월평에서는 22－23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초혼의 경우 결혼시기가 늦어졌음을 나타낸다.

응답자의 나이가 대체로 50대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십대 후반이나 이십대 초반에 남자가 초혼을 하는 경우는 대체로 1920년대 또는 1930년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89 월평의 경우에 이십대 초반의 초혼을 많이 반영하는 것도 응답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1960년대의 상황이다.

7) 여자의 초혼연령

	59 금성	89 금성	89 월평
비해당	2(1.4%)	2(1.5%)	6(5.7%)
15세 이하	6(4.3%)	0	0
16～17세	48(34.7%)	16(12.1%)	6(5.7%)
18～19세	57(41.3%)	33(25.0%)	15(14.1%)
20～21세	15(10.9%)	17(12.9%)	26(24.6%)
22～23세	4(2.9%)	20(15.1%)	16(15.1%)
24～25세	3(2.5%)	19(4.4%)	20(18.9%)
26～27세	0	18(13.6%)	8(7.6%)
28～29세	0	2(1.6%)	3(2.8%)
30세이상	1(0.7%)	1(0.8%)	1(0.9%)
모르겠다	2(1.4%)	0	0
무응답	0	4(3.0%)	5(4.7%)
계	138	132	106

59 금성의 경우 여자의 초혼연령은 16세에서 19세 사이가 76.0%로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89 금성의 경우는 20세에서 27세 사이에 결혼한 사람이 46%나 되었다. 이는 남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혼의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89 월평의 경우도 20－21세 사이가 24.6%로서 가장 많으며 22－25세 사이도 34.0%나 되어 상대

적으로 만혼의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59 금성의 경우는 1920년대 또는 1930년대의 상황을 대체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8) 아들의 초혼 희망 연령

	16-20세	21-22세	23-24세	25-26세	27-28세	29-30세	31이상	무응답	계
59 금성	12 (8.7%)	15 (10.9%)	16 (11.6%)	66 (47.8%)	10 (7.2%)	6 (4.3%)	8 (5.8%)	5 (3.6%)	138
89 금성	1 (0.8%)	1 (0.8%)	2 (1.5%)	18 (13.6%)	47 (35.6%)	39 (29.5%)	13 (9.8%)	11 (8.3%)	132
89 월평	1 (0.9%)	1 (0.9%)	2 (1.9%)	11 (10.4%)	43 (40.6%)	31 (29.2%)	10 (9.4%)	7 (6.6%)	106

59 금성의 경우 47.8%가 아들의 초혼 희망 연령을 25-26세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자신들이 결혼한 나이보다 상당히 많은 나이에 아들이 결혼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반면 89 금성과 89 월평에서는 27-28세가 각각 35.6%와 40.6%로서 가장 많았으며 29-30세 사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29.5%와 29.2%였다. 이는 자신들이 결혼한 나이보다 1-2년 정도 늦은 것이다. 59 금성의 경우는 자신들보다 아들이 상당히 늦은 나이에 결혼할 것을 희망한 반면, 89년에는 비슷하거나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할 것을 희망한 것이다. 이는 만혼의 경향이 그만큼 완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9) 딸의 초혼 희망 연령

	15세미만	16-20세	21-22세	23-24세	25-26세	27-28세	29-30세	31세이상	무응답	계
59금성	1(0.7%)	31 (22.5%)	30 (21.7%)	38 (27.5%)	24 (16.4%)	0	0	8 (5.8%)	6 (4.3%)	138
89금성	0	2 (1.5%)	3 (2.3%)	22 (16.7%)	62 (47.0%)	16 (12.1%)	1 (0.8%)	15 (11.4%)	11 (8.3%)	132
89월평	0	2 (1.9%)	2 (1.9%)	11 (10.4%)	49 (46.2%)	24 (22.6%)	1 (0.9%)	10 (9.4%)	7 (6.6%)	106

59 금성의 경우 딸의 초혼 희망연령을 16－24세 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89 금성과 89 월평의 경우는 25－26세 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7.0%와 46.2%로서 가장 높았다. 이는 모든 사례에서 자신의 결혼연령보다는 딸이 늦게 결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서 남자에 비해 여자의 경우가 더 만혼의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에서 더 만혼의 경향이 나타나고, 동시에 응답자가 딸의 경우에 더 만혼을 원하는 것은 일련의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것은 가족의 크기 즉 가족원수의 소인수화의 경향과 무관하지 않고, 가족노동력에 주로 의존한 생업방식이 주민들의 노동력 동원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점과 맞물릴 때, 혼출을 원칙으로 하는 夫居制를 행함으로서 딸을 시집보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부거제 의해서 딸의 노동력을 상실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동시에 노동력을 제공할 가족원수가 적은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향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혼인후의 거주율 및 혼인연령과 가족원수의 크기 그리고 노동생산의 방식 등이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사회변동의 한 양상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표본수가 더 많은 경우를 대입한다면, 이 방면의 재미있는 결과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10) 아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

	부모의 뜻대로 한다	부모가 정하고 자식의사를 반영한다	자식이 정하고 부모의 승락을 받는다	자식의 의사에 따른다	무응답	계
59 금성	19(13.8%)	42(30.4%)	37(26.8%)	37(26.8%)	3(2.2%)	138
89 금성	0	17(12.9%)	82(62.1%)	23(17.4%)	10(7.5%)	132
89 월평	1(0.9%)	7(6.6%)	76(71.7%)	16(15.1%)	6(5.6%)	106

59 금성의 경우 아들의 결혼 배우자를 부모가 정하겠다는 응답이 13.8%였다. 그리고 부모가 정하고 자식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응

답과 자식이 정하고 부모의 승락을 받도록 하겠다는 응답, 자식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89 금성과 89 월평에서는 자식이 정하고 부모의 승락을 받도록 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62.1%와 71.7%로서 가장 많았다. 이는 30년의 시간차이를 두고 아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모의사 존중에서 자식의사 존중으로 변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전적으로 자식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응답은 59 금성과 89 금성, 그리고 89 월평의 경우에 각각 26.8%, 17.4%, 15.1%였다.

11) 딸의 결혼에 대한 태도

	부모의 뜻대로 한다	부모가 정하고 자식의 의사를 반영한다	자식이 정하고 부모의 승락을 받는다	자식의 의사에 따른다	무응답	계
59 금성	25(18.1%)	47(34.1%)	37(26.8%)	26(18.8%)	3(2.2%)	138
89 금성	0	11(8.3%)	81(61.4%)	27(20.5%)	13(9.8%)	132
89 월평	1(0.9%)	7(6.6%)	71(67.0%)	16(15.1%)	11(10.4%)	106

59 금성의 경우 딸의 배우자를 부모가 정하겠다는 응답은 18.1%였다. 부모가 정하고 자식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아들의 경우보다 부모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 89 금성과 89 월평의 경우는 딸이 자신의 배우자를 정하고 부모의 승락을 받도록 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61.4%와 67.0%로서 가장 많았다. 이는 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딸의 결혼 배우자 선택에서도 자식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2) 아들의 결혼시 제1고려 사항

59 금성의 경우는 성격과 건강이 각각 42.0%, 29.7%로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89 금성의 경우도 성격과 건강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각각 31.1%와 15.2%로서 가장 많았다. 89 월평의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바뀌어 건강이라고 응답한사람이 30.2%로서 가장 많았

으며 성격은 26.4%로서 그 다음이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세 경우 모두 건강과 성격을 며느리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보았다.

	교육	재산	외모	재모	가문	건강	성격	직업	무응답	계
59금성	13 (9.4%)	1 (0.7%)	4 (2.9%)	1 (0.7%)	14 (10.1%)	41 (29.7%)	58 (42.0%)	2 (1.4%)	4 (2.9%)	138
89금성	7 (5.3%)	1 (0.8%)	6 (4.5%)	1 (0.8%)	10 (7.6%)	20 (15.2%)	41 (31.1%)	11 (8.3%)	35 (26.5%)	132
89월평	5 (4.7%)	1 (0.9%)	6 (5.7%)	1 (0.9%)	12 (11.3%)	32 (30.2%)	28 (26.4%)	1 (0.9%)	20 (18.9%)	106

13) 딸의 결혼시 제1고려 사항

	교육	재산	외모	재모	가문	건강	성격	직업	무응답	계
59금성	17 (12.3%)	2 (1.4%)	2 (1.4%)	3 (2.2%)	13 (9.4%)	35 (25.4%)	47 (34.1%)	9 (6.5%)	10 (7.2%)	138
89금성	7 (4.5%)	3 (2.3%)	2 (1.5%)	1 (0.8%)	9 (6.8%)	16 (12.1%)	34 (25.8%)	15 (11.4%)	46 (34.8%)	132
89월평	6 (5.7%)	5 (4.7%)	7 (6.6%)	1 (0.9%)	11 (10.4%)	22 (20.8%)	25 (23.6%)	5 (4.7%)	24 (22.6%)	106

사위의 조건도 며느리의 조건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세 경우 모두 성격과 건강을 가장 중시하였다. 그러나 응답비율은 며느리의 경우보다 조금 낮았다. 한편 사위의 조건으로는 며느리의 조건에 비해 직업이 상대적으로 중요시 되었다. 이는 남편에게 가정의 경재적 부양책임이 부인에 비해 더 크게 부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14) 궁합에 대한 태도

	꼭 봐야 한다	볼 필요가 없다	기타	모르겠다	무응답	계
59 금성	72(52.2%)	52(37%)	10(7.2%)	1(0.7%)	3(2.1%)	138
89 금성	42(31.8%)	66(50.0%)	13(9.8%)	8(6.1%)	3(2.3%)	132
89 월평	51(48.1%)	44(41.5%)	9(8.5%)	1(0.9%)	1(0.9%)	106

59 금성의 경우 궁합을 꼭 봐야 한다는 응답이 52.2%. 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37%였으나, 89 금성의 경우는 봐야 한다는 응답이 31.8%, 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50%였다. 이는 아직도 궁합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상당히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89 월평의 경우는 궁합을 봐야 한다는 응답과 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48.1%, 41.5%로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89년을 기준으로 금성과 월평을 비교해 보면 금성에 비해 월평이 상대적으로 궁합을 보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보수적이었다. 월평은 전통적으로 농업을 주로 한 마을이고 금성은 농업과 어업을 같이 한 마을이라는 점에서 이런 응답 결과는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하다. 제주도에서는 농업을 주로 한 마을일수록 양반마을로 인식되고 있어 월평이 금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지향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응답자를 연령별로 보면 두 마을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궁합을 봐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연령과 보수성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궁합에 대한 태도는 상당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세 경우 공통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궁합을 볼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15) 딸만 있고 아들이 없을 경우 대처방안

	소실을 얻는다	이혼한다	양자를들인다	없는대로 산다	기타	모르겠다	무응답	계
59금성	62 (44.9%)	2 (1.4%)	53 (38.4%)	17 (12.3%)	0	1 (0.7%)	3 (2.2%)	138
89금성	42 (31.8%)	1 (0.8%)	27 (20.5%)	41 (31.1%)	3 (2.3%)	9 (6.8%)	9 (6.8%)	132
89월평	10 (9.4%)	0	39 (36.8%)	37 (34.9%)	0	10 (9.4%)	10 (9.4%)	106

59 금성의 경우는 아들이 없을 경우 소실을 얻는다는 응답이 44.9%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양자를 들인다는 응답과 없는대

로 살아간다는 응답이 많았다. 89 금성의 경우에는 소실을 얻는다는 응답과 없는대로 산다는 응답이 각각 31.8%와 31.1%로서 가장 많았고 양자를 얻는다는 응답은 20.5%로서 그 다음이었다. 한편 89 월평의 경우에는 양자를 들인다는 응답이 36.8%로서 가장 많았으며 없는대로 산다는 응답이 34.9%로서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소실을 얻는다는 응답은 9.4%로서 비교적 낮았다.

없는대로 산다는 응답은 시간적 차이를 두고 달리 나타났다. 즉 59년에 비해 89년이 없는대로 산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89년을 기준으로 금성과 월평을 비교해 보면 아들이 없을 경우 금성사람들은 소실을 얻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월평사람들은 양자를 들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금성에서는 소실을 통해서라도 자기 자식을 얻겠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월평에서는 양자를 통해서라도 가계를 계승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즉, 아들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금성에서는 자기 아들을 남기겠다는 것이고, 월평에서는 가계를 계승한다는 것이며, 이는 월평이 상대적으로 유교전통이 강한 마을이기 때문이다.

한편 세 경우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소실을 두거나 양자를 들이겠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나이가 적을 수록 없는대로 살아가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가계계승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16) 딸도 아들도 없을 경우의 대처방안

	소실을 얻는다	이혼한다	양자를들인다	없는대로 산다	기타	모르겠다	무응답	계
59 금성	65 (47.1%)	2 (1.4%)	48 (34.8%)	15 (10.9%)	2 (1.4%)	1 (0.7%)	5 (3.6%)	138
89 금성	46 (34.8%)	3 (2.3%)	39 (29.5%)	17 (12.9%)	2 (1.5%)	14 (10.6%)	11 (8.3%)	132
89 월평	10 (9.4%)	4 (3.8%)	59 (55.7%)	10 (9.4%)	0	12 (11.3%)	11 (10.4%)	106

59 금성과 89 금성의 경우는 소실을 얻는다는 응답과 양자를 들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59 금성의 경우 두 응답은 각각

47.1%와 34.8%로서 89 금성의 경우보다 정도가 심하였다. 한편 89 월평의 경우는 양자를 들인다는 응답이 55.7%로서 가장 높았으며 소실을 얻는다는 응답은 9.4%에 불과하였다. 아들이 없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서도 금성은 상대적으로 소실을 얻는다는 응답이, 월평은 양자를 들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없는대로 산다는 응답은 딸이 있을 경우보다 낮아 아들도 딸도 없는 경우보다는 딸이라도 있을 경우를 긍정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실을 얻는다는 문제와 관련된 질문은 1959년도 당시에 설문지를 제작한 연구자들이 고려했던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요즈음 새삼스럽게 이러한 문제를 설문으로 담는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회현상을 보고자 할 때, 등장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989년의 질문시에 이 질문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다만 1959년도와의 지속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89 금성에서 상당한 비율의 소실얻음에 대한 답변이 제안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아이디어가 실현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상당한 의문점이 있는 것이다. 답변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과 실제로 사람들이 현실성을 고려해서 답변을 한 것이라는 점과는 차이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17) 과부의 재혼에 대한 견해

	무조건 반 대	자녀가 있으면 반대	해도 좋다	언제나 찬성	기타	무응답	계
59 금성	25 (18.1%)	48 (34.8%)	40 (29.0%)	15 (10.9%)	3 (2.2%)	7 (5.1%)	138
89 금성	16 (12.1%)	67 (50.8%)	20 (15.2%)	17 (12.9%)	3 (2.3%)	9 (6.8%)	132
89 월평	16 (15.1%)	21 (19.8%)	38 (35.8%)	21 (19.8%)	1 (0.9%)	9 (8.4%)	106

과부의 재혼에 대한 견해를 보면, 59 금성은 반대가 52.9%, 89 금성은 62.9%였으나, 89 월평의 경우는 35.0%에 불과하였다. 또 언

제나 재혼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59 금성과 89 금성은 각각 10.9%, 12.9%였으나 89 월평은 19.8%였다. 이 자료는 금성이 월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혼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론에는 응답자의 연령이 간섭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59 금성의 경우 89 월평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 이유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89 금성이 월평에 비해 보수적인 특별한 이유는 찾기 힘든다. 다만 89금성은 응답자가 대부분 노인층으로서 상대적으로 응답자의 나이가 젊은 월평과 차이를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8) 이혼에 대한 견해

	반 대	찬 성	기 타	모르겠다	무응답	계
59 금성	68(49.3%)	54(39.1%)	4(2.9%)	9(6.5%)	3(2.2%)	138
89 금성	92(69.7%)	25(18.9%)	4(3.0%)	8(6.0%)	3(2.3%)	132
89 월평	50(47.2%)	29(27.4%)	14(13.2%)	12(11.3%)	1(0.9%)	106

세 경우 모두 이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59 금성의 경우는 49.3%가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89 금성은 69.7%, 89 월평은 47.2%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응답자의 성을 기준으로 보면 세 경우 모두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이혼에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 경제 현상

1) 본인의 현재 직업(농업)

59 금성의 경우 농업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가구는 4.3%에 불과하였으나 89 금성에서는 18.9%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업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59년까지만 하더라도 어업

을 하는 사람들은 농업을 병행하였으나 89년에는 농업생산성의 하락으로 어업에만 종사하는 가구들이 늘었다.

	안한다	자주	자주겸자작	자작	자작겸소작	소작겸자작	소작	농업노동자	모르겠다	무응답	계
59 금성	6 (4.3%)	3 (2.2%)	2 (1.4%)	82 (59.4%)	18 (13.0%)	2 (1.4%)	14 (10.1%)	3 (2.2%)	1 (0.7%)	7 (5.1%)	138
89 금성	25 (18.9%)	0	2 (2,3%)	63 (47.7%)	16 (12.1%)	5 (3.8%)	14 (10.6%)	0	1 (0.8%)	5 (3.8%)	132
89 월평	11 (10.4%)	0	1 (0.9%)	67 (63.2%)	7 (6.6%)	4 (3.8%)	5 (4.7%)	9 (8.5%)	0	2 (1.9%)	106

89 월평의 경우 비농가는 10.4%였다. 이들중 어업 종사자는 1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규모 상업에 종사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관광업소에 종사하는 가구들이다. 월평은 서귀포와 중문이 가까워서 외부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이 상당수 있다.

세 경우 모두 자작농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소작농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제주도 농업의 중요한 특징중 한가지이다. 토질이 척박하고 절대적인 경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주층이 발달할 수 없고 소규모 경지를 이용하여 자급자족적 영농을 하는 제주도 농업의 한 특징이 여기에서도 나타난다.

2) 과거 다른 직업 소유 여부

	없 다	있 다	무응답	계
59 금성	92(66.7%)	45(32.6%)	1(0.7%)	136
89 금성	79(59.8%)	50(37.9%)	2(2.3%)	132
89 월평	77(72.6%)	26(24.5%)	3(2.8%)	106

과거에 다른 직업을 가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59 금성의 경우 32.6%였고, 89 금성의 경우 37.9%, 그리고 89 월평의 경우에는 24.5%였다. 이는 89 월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9 금성의 경우에서 다른 직업을 가져본 사람들은 주로 일본에서 공업노동자 생활

올 한 사람들이다. 반면 89 금성과 89 월평의 경우에는 공무원, 상업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었다.

<과거 직업의 종류>

	상 업	목축업	공무원	공 업 노동자	어 업	농 업	기 타	무응답	계 (가구수)
59 금성	7	0	9	19	2	2	6	1	45
89 금성	9	1	12	4	10	4	10	3	50
89 월평	3	4	9	4	0	0	6	3	26

3) 육지나 도시에서 산 경험

	없 다	있 다	무응답	계
59 금성	48 (34.8%)	90 (65.2%)	0	138
89 금성	90 (68.2%)	41 (31.1%)	0 (0.8%)	132
89 월평	69 (65.1%)	35 (33.0%)	2 (1.9%)	106

59 금성의 경우 65.2%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외지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89 금성과 89 월평에서는 각각 31.1%와 33%만 외지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59 금성에서 외지생활 경험자가 많은 것은 주로 일본에서의 생활경험 때문이다. 일제시대에 제주사람들은 징용으로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이 많았고 해방후 이들이 대부분 귀국해 이런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외지생활을 경험한 지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외지생활을 경험한 지역>

	제주시	서 울	부 산	대 구	광 주	일 본	육지의 어 촌	기 타	무응답	계
59금성	4	10	3	1	4	62	0	6	0	90
89금성	5	7	6	2	4	13	2	2	2	41
89월평	2	5	6	0	0	21	0	1	2	35

이 표에서 보듯이 59 금성은 일본에서 생활한 경험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89 금성과 89 월평에서도 육지의 어느 지역보다 일본에서 생활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이는 제주와 일본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현지연구에서도 '제주사람중에 일본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표현을 자주 들을 수 있어서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였다. 50년대에 비해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아직도 제주도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한 선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은 특이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역으로 설명한다면, 제주에서 제주의 문제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4) 희망하는 장남의 직업

	비해당	농업	어업	자영업	공무원	교사	회사원	원하는 대로	무응답	계
59금성	0	23 (26.2%)	2 (1.4%)	16 (11.6%)	17 (12.3%)	2 (1.4%)	0	6 (4.3%)	72 (52.2%)	138
89금성	1 (0.8%)	1 (0.8%)	0	9 (6.8%)	20 (15.2%)	6 (4.5%)	12 (9.1%)	28 (21.2%)	55 (41.6%)	132
89월평	1 (0.9%)	8 (7.5%)	0	4 (3.8%)	7 (6.6%)	5 (4.7%)	13 (12.3%)	25 (23.6%)	43 (40.6%)	106

59 금성의 경우 장남의 직업으로는 농업과 자영업, 그리고 공무원이 선호되었다. 농업을 원하는 것은 장남이 가계를 계승해주기를 희망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공무원에 대한 선호는 관을 중시하는 인식과 유관하다. 89년 금성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선호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농업과 자영업에 대한 선호는 퇴조하고 장남이 원하는대로 하겠다는 응답이 19.7%로 많아졌다.

한편 89 월평에서는 자식이 원하는대로 따르겠다는 응답이 20.8%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회사원이 선호되었다. 이는 현실적

으로 자녀가 마을 외부에서 직장을 구할 경우 회사원이 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5) 희망하는 차남 이하의 직업

	비해당	농업	어업	자영업	공무원	교사	회사원	원하는 대로	무응답	계
59금성	0	32 (23.2%)	3 (9.9%)	33 (23.9%)	32 (23.2%)	6 (4.3%)	5 (3.6%)	5 (3.6%)	22 (15.9%)	138
89금성	1 (0.8%)	1 (0.8%)	0	9 (6.8%)	27 (20.5%)	11 (8.3%)	16 (12.1%)	26 (19.7%)	41 (31.1%)	132
89월평	1 (0.9%)	12 (11.3%)	0	2 (1.9%)	10 (9.4%)	5 (4.7%)	14 (13.2%)	22 (20.8%)	40 (37.8%)	106

차남 이하의 희망 직업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무응답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차남 이하의 경우에는 장남에 비해 관심과 기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59 금성의 경우에는 차남 이하에 대해서도 농업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89 금성의 경우에는 자식이 원하는대로 따르겠다는 응답과 공무원이 선호되었다. 한편 89 월평의 경우에는 자식이 원하는대로 하겠다는 응답이 23.6%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장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원이 선호되었다.

6)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

	비해당	만 족	불만족	기 타	무응답	계
59 금성	0	51(37.0%)	80(58.0%)	1(0.7%)	6(4.3%)	138
89 금성	1(0.8%)	50(37.9%)	71(53.8%)	2(1.5%)	8(6.1%)	132
89 월평	0	52(49.1%)	48(45.2%)	0	6(5.7%)	106

현재 직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59 금성, 89 금성, 89 월평의 경우에 각각 37%, 37.9%, 49.1%로 나타났다. 즉 월평이 금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세 경우 모두

만족도가 50% 미만으로서 대체로 만족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다.

7) 논의 소유면적

	없 다	500평 미 만	500－1000평	1000－2000평	2000－3000평	3000평 이 상	무응답	계
59금성	125 (90.6%)	1 (0.7%)	0	1 (0.7%)	0	0	11 (8.0%)	138
89금성	129 (97.7%)	0	0	1 (0.8%)	0	0	2 (1.5%)	132
89월평	60 (56.6%)	5 (4.7%)	19 (17.9%)	14 (13.2%)	4 (3.8%)	1 (0.9%)	3 (2.8%)	106

논의 소유면적을 보면 금성과 월평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금성은 90%이상의 가구가 논을 전혀 소유하지 못한 반면 월평은 43.4%가 논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월평의 경우 논을 밀감원이나 비닐하우스로 개조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지역의 논 면적 차이는 더욱 커진다. 이는 금성이 화산회토 지역이고 하천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인데 반해 월평지역은 전통적인 제주도의 논농사지역으로서 하천이 잘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월평의 경우 논의 소유면적은 대부분 500평～2000평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토지가 비교적 균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농가가 자작농의 형태를 취하였다.

8) 밭의 소유면적

	없 다	500평 미 만	500－1000평	1000－2000평	2000－3000평	3000평 이 상	4000평 이 상	무응답	계
59금성	12 (8.7%)	11 (8.0%)	34 (24.6%)	35 (25.4%)	15 (10.9%)	10 (7.2%)	5 (3.6%)	16 (11.6%)	138
89금성	30 (22.7%)	3 (2.3%)	15 (11.4%)	24 (18.2%)	25 (18.9%)	8 (6.1%)	7 (5.3%)	20 (15.1%)	132
89월평	80 (75.5%)	0	6 (5.7%)	7 (6.6%)	4 (3.8%)	4 (3.8%)	0	5 (4.7%)	106

밭의 면적은 월평에 비해 금성이 훨씬 더 많다. 월평은 한라산의 정남에 위치한 관계로 상대적으로 경사면이 가파른 지형의 하단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경지면적이 적다. 59 금성의 경우는 500－2000평 사이의 밭을 소유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50%로서 소농 경작이면서도 비교적 소유규모의 격차가 적었다. 그러나 89 금성은 1000－2000평 사이의 밭을 소유한 사람이 37.1%인 반면,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22.7%나 되고 4000평 이상을 소유한 사람도 5.3%나 되어 밭의 소유규모상 격차가 상대적으로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월평은 대부분의 농가가 밀감과 하우스 농사를 하고 있어 밭의 소유규모가 경제적 중요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9) 과수원 면적

	없 다	500평 미 만	500－1000평	1000－2000평	2000－3000평	3000평 이 상	무응답	계
59금성	115 (83.3%)	12 (8.7%)	0	0	0	0	11 (8.0%)	138
89금성	129 (97.7%)	0	0	0	0	1 (0.8%)	2 (1.5%)	132
89월평	34 (32.1%)	4 (3.8%)	15 (14.2%)	28 (26.4%)	6 (5.7%)	13 (12.3%)	6 (5.6%)	106

금성은 89년의 경우 97.7%가 밀감원을 갖고 있지 않은 반면 월평은 32.1%를 제외한 전 가구가 말감농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감농사에서 금성과 월평의 농업형태가 가장 크게 다르다. 월평 마을에서는 26.4%가 1000－2000평의 면적을 경작하고 있으며 경작면적의 편차는 크지 않는 편이다.

10) 소 사육 두수

	없 다	1－2마리	3－4마리	5－6마리	7마리이상	무응답	계
59 금성	85(61.6%)	41(29.7%)	0	1(0.7%)	0	11(8.0%)	138
89 금성	121(91.7%)	7(5.3%)	0	0	2(1.6%)	2(1.5%)	132
89 월평	101(95.3%)	3(2.8%)	0	0	0	2(1.9%)	106

59 금성에서는 29.7%의 가구가 소를 한두마리 정도를 사육하였으나, 89 금성과 89 월평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소 사육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농기계의 도입으로 농업에서 소의 중요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1) 돼지 사육 두수

	없 다	1-2마리	3-4마리	5마리이상	무응답	계
59 금성	20(14.5%)	106(76.8%)	1(0.7%)	0	11(8.0%)	138
89 금성	124(93.9%)	0	0	5(3.8%)	3(2.3%)	132
89 월평	103(92.7%)	1(0.9%)	0	0	2(1.9%)	106

돼지사육 두수를 보면 59 금성에서는 76.8%가 한두마리는 기르고 있었다. 이는 전통적인 제주도의 화장실 구조와 연관이 있다. 한편, 89 금성과 89 월평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가구에서 돼지를 한마리도 기르지 않고 있다. 이는 새마을 사업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전통적인 톳통이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금비의 보급으로 돼지를 이용한 퇴비가 더 이상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과도 연관성이 있다.

12) 닭 사육 두수

	없다	1-2마리	3-4마리	5-6마리	7-8마리	9-10마리	11마리 이상	무응답	계
59 금성	59 (42.8%)	31 (22.5%)	22 (15.9%)	9 (6.5%)	1 (0.7%)	2 (1.4%)	3 (2.2%)	11 (8.0%)	138
89 금성	128 (97.0%)	1 (0.8%)	0	1 (0.8%)	0	0	0	2 (1.5%)	132
89 월평	104 (98.1%)	0	0	0	0	0	0	2 (1.9%)	106

닭의 사육두수를 보면 59 금성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가구가 닭을 사육하였다. 제주도의 닭 사육은 돼지 사육과 마찬가지로 거름을 만

드는 목적이 크다. 그러나 89년의 두 마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닭을 더 이상 기르지 않고 있다. 거름 만들기에서 닭의 중요성이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월평의 경우 하우스농사를 많이 하고 있고, 닭은 하우스의 작물을 상하게 할 위험이 커서 기르는 것이 부담스럽게 되었다.

50년대 제주 농촌에서는 대부분이 소나 돼지 그리고 닭을 사육하고 있었지만,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가축사육이라는 것은 거의 사라진 생계방식이 되어 버렸다. 영농방식의 변화와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한 가옥형태의 변화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소득은 상당히 높아졌고, 그 소득원은 단일한 환금작물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즉 제주 농촌의 생계방식을 일반화한다면, 농업의 상업화에 따른 결과이며, 이러한 현상은 제주농촌이 거의 완벽하게 사장경제에 종속되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에로의 종속현상 과정에서 농가의 적응전략이 자생력을 잃어버렸고, 농업은 이제 완벽하게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농가에서 돼지고기 한점이나 달걀 한개를 먹기 위해서도 궁극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

13) 연소득

	100만원 미 만	100-500 만원	500 1000만원	1000- 2000만원	2000- 3000만원	3000만원 이상	무응답	계
59 금성	125 (90.6%)	0	0	0	0	0	13 (9.4%)	138
89 금성	18 (13.6%)	51 (38.6%)	19 (14.4%)	12 (9.1%)	3 (2.3%)	0	29 (22.0%)	132
89 월평	7 (6.6%)	24 (22.6%)	18 (17.0%)	24 (22.6%)	10 (9.4%)	9 (8.5%)	14 (3.2%)	106

1959년과 1989년의 화폐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두 시기의 소득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89 금성과 89 월평을 비교해 보면 월평의 소득이 금성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성은

대부분 밭농사를 하는 반면 월평은 밀감과 하우스 농사를 하기 때문에 월평의 소득이 더 많다.

14) 생활정도

	상	중의 상	중의 하	하의 상	하의 하	계
59 금성	1(0.7%)	19(13.8%)	34(24.6%)	45(32.6%)	35(25.4%)	138
89 금성	8(6.1%)	30(22.7%)	41(31.1%)	18(13.6%)	29(22.0%)	132
89 월평	5(4.7%)	29(27.4%)	32(30.2%)	13(12.3%)	22(20.8%)	106

59 금성의 경우는 자신의 생활수준을 하의 상이라고 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하의 하, 중의 하라고 하였다. 반면 89 금성과 89 월평에서는 공통적으로 중의 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하의 하, 중의 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자신의 생활수준을 상대적으로 1989년의 응답자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5)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이유

	재산의 밑천의 없어서	아버지 지위가 낮아서	연줄 부족	학벌 부족	직업이 나빠서	부지런 하지않 아서	교재력 부족	운이 나빠서	무응답	계
59금성	56 (40.6%)	5 (3.6%)	3 (2.2%)	14 (10.1%)	9 (6.5%)	19 (13.8%)	1 (0.7%)	23 (16.7%)	8 (5.8%)	139
89금성	42 (31.8%)	0	5 (3.8%)	5 (3.8%)	0	51 (38.6%)	0	7 (5.3%)	22 (16.7%)	132
89월평	54 (50.9%)	0	2 (1.9%)	1 (0.9%)	1 (0.9%)	14 (13.2%)	0	6 (5.7%)	28 (26.4%)	106

59 금성의 경우는 잘 살지 못하는 이유로 재산의 밑천이 없어서와 운이 나빠서를 가장 많이 들었다. 89년 금성의 경우에는 부지런하지 않아서와 재산의 밑천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 89 월평의 경우에는 재산의 밑천이 없어서와 부지런하지 않아서를 가장 많이

들었다.

59 금성과 89 금성을 비교해 보면 두 경우 모두 재산이 없어서라는 이유를 많이 들었으나, 상대적으로 59년에는 운이 없다는 이유를, 89년에는 부지런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많이 들었다. 잘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금성과 월평간 차이도 나타났다. 1989년을 기준으로 한 두 마을의 응답차이는 두 마을의 경제적 토대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금성의 경우에는 부지런하지 않은 것을 잘 살지 못하는 첫번째 이유로 들었다. 재산의 밑천이 없어서 라고 응답한 비율도 상당히 높았으나 월평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살지 못하는 이유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반면 월평은 재산의 밑천이 없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50.9%나 된 반면 부지런 하지 않아서 라고 응답한 경우는 13.2%에 불과 하였다. 이는 월평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는 이유를 개인적인 것에서가 아니라 토지소유 규모와 같은 구조적인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마을의 이러한 차이는 경제적 토대의 차이에 근거한 측면이 있다. 금성은 대부분의 제주마을과 유사하게 토지가 부족하여 경제적 부의 척도로서 토지의 중요성이 크지 않은 지역이다. 누구나 열심히 노동을 하기만 하면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원인을 구조적인 원인에 우선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월평은 제주도에서는 보기 힘들게 논농사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중요성이 컸다. 따라서 개인적인 노력보다는 상속받은 토지규모에 의해 경제적 차별성이 생겨났다. 이런 원인이 응답에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5. 친족조직

1) 상속에 대한 태도

상속에 대한 태도에서는 금성과 월평이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59 금성의 경우와 89 금성의 경우는 아들에게만 균등분할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51.4%, 2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아들과 딸

모두를 대상으로 균등분할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18.1%, 24.2%로 높았다. 반면 89 월평에서는 장자를 우대하고 아들과 딸에게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27.4%로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장자를 우대하고 아들에게만 상속하겠다는 응답이 26.4%로 높았다. 즉, 금성은 분할상속의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월평은 장자 우대 불균등 상속의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59년 금성의 경우 균등상속의 비율은 69.5%였으며, 89 금성은 균등분할상속의 비율이 53.7%였다. 반면, 월평은 균등상속의 비율이 35.9%인 반면 불균등상속의 비율은 53.8%였다.

	장자에게만 상속	장자우대, 아들에게만 균등분할 상속	아들에게 균등분할 상속	장자 우대, 아들 딸모두 균등분할 상속	아들 딸 균등분할 상속	상속 안한다	기타	무응답	계
59금성	3 (2.2%)	15 (10.9%)	71 (51.4%)	12 (8.7%)	25 (18.1%)	3 (2.2%)	5 (3.6%)	4 (2.9%)	138
89금성	5 (3.8%)	12 (9.1%)	39 (29.5%)	10 (7.6%)	32 (24.2%)	10 (7.6%)	18 (13.6%)	6 (4.6%)	132
89월평	0	28 (26.4%)	16 (15.1%)	29 (27.4%)	22 (20.8%)	3 (2.8%)	0	7 (6.6%)	106

이런 차이는 제주도 상속관행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즉, 애월과 성산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 지방은 균등상속의 경향을 보이며, 남쪽은 불균등상속의 경향을 보이고 는데 북군에 속한 금성은 균분상속을, 남쪽지방인 월평은 불균등상속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일반적 경향을 만족시키고 있다.

2)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

	있 다	없 다	무응답	계
59 금성	105(76.1%)	32(23.2%)	1(0.7%)	138
89 금성	90(68.2%)	38(28.8%)	4(3.0%)	132
89 월평	65(61.3%)	40(37.7%)	1(0.9%)	106

59 금성의 경우 76.1%가 상속을 받았으나 89 금성에서는 68.2%

가 상속을 받았다. 89 월평의 경우는 61.3%가 상속을 받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세 경우의 차이는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받은 비율은 재산이 없거나 적어서 상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아들들이 장남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상속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제주도는 재산상속방법이 최소한 장자 단독상속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3) 부모의 상속방법

	비해당	장자우대아들만 불균등	장자 우대 아들 딸 모두	아들, 딸 균등히	아들만 균등히	독자라 서혼자 받음	분배 안함	무응답	계
59 금성	28 (20.3%)	35 (25.4%)	13 (9.4%)	14 (10.1%)	32 (23.2%)	7 (5.1%)	1 (0.7%)	8 (5.8%)	138
89 금성	19 (14.4%)	15 (11.4%)	8 (6.1%)	8 (6.1%)	37 (28.0%)	18 (13.6%)	8 (6.1%)	19 (14.3%)	132
89 월평	28 (26.4%)	27 (25.5%)	4 (3.8%)	0	15 (14.2%)	16 (15.1%)	7 (6.6%)	9 (8.5%)	106

59 금성의 경우는 장자우대 아들만 불균등 상속한 경우와 아들사이에 균등상속한 경우가 각각 25.4%와 23.2%로 가장 많았다. 반면 89 금성의 경우는 아들들 사이에 균등상속한 경우가 28.0%로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상속방법에서도 금성은 균등상속의 원칙을 비교적 지키려는 경향이있다. 반면, 월평의 경우는 장자우대 아들들 사이에 불균등 상속이 25.5%로서 가장 많았으며 아들사이에 균등상속한 경우는 14.2%에 불과하였다. 이는 월평이 상대적으로 불균등상속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 경우 모두 상속에 있어서 원칙을 지킨 경우보다는 원칙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실제로 상속이 가족내 자녀의 수나 재산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지극히 상황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제사를 지내는 여부

	지낸다	안지낸다	무응답	계
59 금성	123(89.1%)	15(10.9%)	0	138
89 금성	113(85.6%)	17(12.9%)	2(1.5%)	132
89 월평	81(76.4%)	23(23.6%)	0	106

제사를 지낸다고 응답한 경우는 59 금성의 경우 89.1%, 89 금성의 경우 85.6%, 89 월평의 경우는 76.4%였다. 이는 금성이 월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사를 많이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통계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의 의미 차이로 오해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집안에서 지내는 제사에 참석한다는 의미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모시는 것의 두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전자의 의미라면 월평의 경우는 사실과 다른 통계결과를 보여준다. 즉, 금성의 경우에는 1959년 이전부터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고 신자들도 많아서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월평의 경우에는 1가구를 제외하면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76.4%의 제사 참여율은 사실과 다른 통계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자신이 직접 모시는 제사를 의미한다면 세 경우 모두 지나치게 통계결과가 지나치게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금성은 제사분할상속지역이라고 하지만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제사를 상속하는 경우는 적고, 월평은 제사 단독상속지역임을 고려하면 이 결과는 사실보다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응답자들은 이 설문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제사에 참석한다는 의미로, 또 다른 경우에는 제사를 직접 모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항은 제주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육지의 경우를 상정하고 작성된 질문이 잘못된 응답결과를 도출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제주도에서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모시는 것을 의미한다.

5) 큰댁 제사에 참석 여부

	참석한다	참석하지않는다	무응답	계
59 금성	109(79.0%)	22(15.9%)	7(5.0%)	138
89 금성	117(88.6%)	78(5.3%)	8(6.1%)	132
89 월평	97(91.5%)	9(8.5%)	0	106

59 금성은 79%가 큰댁 제사에 참석하였으며 89 금성에서는 88.6%가 참석하였다. 그리고 89 월평에서는 91.5%가 참석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제사를 통한 친족간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6) 제사에 대한 태도

	찬성	반대	모르겠다	무응답	계
59 금성	117(85.4%)	14(10.2%)	4(2.9%)	2(1.5%)	138
89 금성	124(93.9%)	5(3.8%)	0	2(2.3%)	132
89 월평	92(86.8%)	5(4.7%)	4(3.8%)	5(4.7%)	106

세 경우 모두 85% 이상에 제사에 대해서 찬성의사를 표하였다. 제사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제사가 자손의 중요하고도 신성한 의무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통해서 볼 때 조사마을에서 제사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7) 연간 문중이 한 자리에 모이는 횟수

	0번	1-2회	3-4회	5-6회	7-8회	9회이상	모르겠다	무응답	계
59금성	10 (7.2%)	92 (66.7%)	17 (12.3%)	5 (3.6%)	1 (0.7%)	6 (4.3%)	3 (2.2%)	4 (2.9%)	138
89금성	9 (6.8%)	81 (61.4%)	15 (11.4%)	3 (2.3%)	1 (0.8%)	2 (1.6%)	16 (12.1%)	5 (3.8%)	132
89월평	11 (10.4%)	59 (55.7%)	17 (16.0%)	4 (3.8%)	2 (1.9%)	2 (1.9%)	8 (7.5%)	3 (2.8%)	106

세 경우 모두 연간 1-2회 문중이 모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3-4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대부분의 경우에 연간 4회 미만 문중모임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중이 모이는 기회는 주로 음력 8월 초에 행하는 모듬벌초 때이다. 육지와는 달리 문중조직이 잘 발달하지 못한 제주도에서 문중이 모이는 것은 조상의 산소를 벌초하는 때이다. 제주도에서는 문중 구성원 모두가 모여 함께 벌초를 하는데 이를 모듬벌초라고 한다. 모듬벌초는 문중을 결속하는 계기가 되며, 조상의 산소 위치를 기억하고 후손에게 전승하는 기회로 활용되기도 한다.

8)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는 대상

	이웃	친구	친척	기타	안한다	무응답	계
59 금성	29 (21.0%)	10 (7.2%)	84 (60.9%)	0	10 (7.2%)	5 (3.6%)	138
89 금성	7 (5.3%)	6 (4.5%)	82 (62.1%)	2 (1.5%)	27 (20.5%)	8 (6.1%)	132
89 월평	6 (5.7%)	3 (2.8%)	59 (55.7%)	1 (0.9%)	32 (30.2%)	5 (4.7%)	106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는 대상으로는 세 경우 모두 친척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59 금성의 경우는 이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1%로서 그 다음으로 높았으나 89 금성과 89 월평의 경우는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20.5%와 30.2%나 되었다. 다시 말하면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친척에게만 도움을 청하였다. 이는 친족집단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협조단위임을 의미한다. 비록 세 경우 모두 배타적인 사회조직으로서의 친족집단이 발달하지 못하였지만 친척간에 정서적인 의존관계는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이 결과는 보여준다.

9) 자녀 혼사의 의논 상대

	이웃	친구	친척	기타	안한다	무응답	계
59 금성	9(6.5%)	8(5.8%)	108(78.3%)	2(1.4%)	8(5.8%)	3(2.2%)	138
89 금성	5(3.8%)	4(3.0%)	90(68.2%)	5(3.8%)	20(15.2%)	8(6.1%)	132
89 월평	2(1.9%)	3(2.8%)	70(66.0%)	6(5.7%)	15(14.2%)	10(9.4%)	106

자녀 혼사에 관한 의논 역시 친척을 대상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59 금성의 경우는 78.3%, 89 금성의 경우는 68.2%, 89 월평의 경우는 66%가 친척에게 자녀 혼사에 관한 의논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응답 결과 역시 친척간에 정서적 유대가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6. 지역사회

1) 가입한 계

	없다	혼상계	쌀계	그릇계	친목계	갑장계	기타	무응답	계
59 금성	65 (47.1%)	41 (29.7%)	5 (3.6%)	0	8 (5.8%)	0	1 (0.7%)	14 (10.1%)	138
89 금성	55 (41.7%)	10 (7.6%)	23 (17.4%)	2 (1.5%)	33 (25.0%)	0	3 (2.3%)	6 (4.5%)	132
89 월평	40 (37.7%)	2 (1.9%)	2 (1.9%)	0	43 (40.6%)	12 (11.3%)	1 (0.9%)	6 (5.7%)	106

가입한 계가 하나도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59 금성의 경우 47.1%, 89 금성의 경우 41.7%, 89 월평의 경우는 37.7%였다. 그 나머지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계에 가입하고 있었다. 가입한 계의 성격을 보면 59 금성의 경우는 혼상계가 29.7%로 가장 많은 반면, 89 금성과 89 월평에서는 친목계가 각각 25%와 40.6%로 가장 많았다. 이는 계의 성격이 시기적으로 변하였음을 나타낸다. 즉, 59년에는 경조사에 경제적 부조를 하는 혼상계가 지배적이었으나 89년에는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친목계가 지배적으로 되었다.

한편, 59년에 비해 89년에는 계에 가입한 비율이 늘었다. 이는 계가 단순히 전통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잘못 되었음을 보여준다. 계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성격이 변화되고 있을 뿐 그 자체가 소멸되거나 다른 것에 의해 대체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 가입한 단체

	없 다	1개	2개	3개이상	무응답	계
59 금성	80(58.0%)	17(12.3%)	1(0.7%)	0	40(29.0%)	138
89 금성	84(63.6%)	34(25.8%)	8(6.1%)	0	6(4.6%)	132
89 월평	37(34.9%)	33(31.1%)	22(20.8%)	6(5.7%)	8(7.5%)	106

가입한 단체의 수는 89 월평의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즉, 가입한 단체가 없다는 응답의 경우 59 금성은 58%, 89 금성은 63.6%인데 반하여 89 월평은 34.9%였다. 그리고 2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한 경우도 89년 월평은 26.5%로서 다른 두 경우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는 지역사회활동에서 월평이 금성보다 더 활발함을 나타낸다.

지역사회활동은 금성과 월평 공히 정부의 비공식조직에 편입된 경우가 많다. 이런 활동의 예로는 전직 동장 모임, 새마을지도자회, 마을원로회 등이 있다. 반면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발적인 활동은 월평에서 활발한데 이런 예로는 서귀포시 단위에서 조직된 작목반이나 고교 동창모임, 신용협동조합 등이 있다. 월평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가구주들이 많아 이런 모임에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이다.

3) 반상의 구분

	있 다	없 다	모르겠다	무응답	계
59 금성	38(27.5%)	78(56.5%)	10(7.2%)	12(8.7%)	138
89 금성	35(26.5%)	80(60.6%)	13(9.8%)	4(3.0%)	132
89 월평	26(24.5%)	69(65.1%)	6(5.7%)	5(4.7%)	106

반상구분에 대해서는 89 월평이 가장 적다고 응답하였다. 59 금성의 경우는 27.5%가 마을내에서 반상의 구분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89 금성에서도 26.5%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89 월평에서는 24.5%만이 그러한 구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금성은 해안과 중산간에 마을이 걸쳐 있어서 어업과 농업을 겸하고 있는 반면 월평은 비록 해안마을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생업에 근거한 반상의 구분은 약한 편이다.

마을내에서 반상구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한 구분이 혼사에서 나타난다고 응답하였으며 마을사업이나 기타의 일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잘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즉, 공식적으로 반상의 구분은 없어졌으나 비공식적으로 반상의 구분은 여전히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반상차별에 대한 태도

	없어지지 않는다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곧 없어진다	모르겠다	무응답	계
59 금성	16(11.6%)	31(22.5%)	66(47.8%)	10(7.2%)	15(10.9%)	138
89 금성	5(3.8%)	5(3.8%)	111(8.4%)	2(1.5%)	9(6.8%)	132
89 월평	9(8.5%)	3(3.8%)	78(73.6%)	4(3.8%)	11(10.4%)	106

59 금성의 경우 반상의 차별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11.6%,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없어진다고 응답한 사람이 22.5%로서 반상차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34.1%였다. 그러나 89 금성에서는 그런 사람이 7.6%에 불과하였으며, 89 월평에서도 12.3%만이 반상차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상차별이 곧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5) 반상차별의 필요성

	절대로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없애는게 좋다	절대로 없애야한다	기 타	무응답	계
59 금성	1 (0.7%)	18 (13.0%)	27 (19.6%)	70 (50.7%)	2 (1.4%)	20 (14.5%)	138
89 금성	2 (1.5%)	7 (5.3%)	22 (16.7%)	90 (68.2%)	0	11 (8.3%)	132
89 월평	1 (0.9%)	8 (7.5%)	27 (25.5%)	59 (55.7%)	0	11 (0.3%)	106

59 금성의 경우 반상차별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0.7%, 조금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3.0%로서 13.7%의 응답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89 금성에서는 6.8%만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89 월평에서는 8.4%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반상차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성과 월평의 차이보다 59년과 89년의 차이가 더 커서 시간적 차이를 두고 태도에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준다.

6) 마을생활의 장점

	인심이 좋다	경제적 차이가 있다	천인척 관계가 발달	반상차별이 없다	상부상조 한다	기타	없다	무응답	계
59금성	17 (12.3%)	0	1 (0.7%)	1 (0.7%)	57 (41.3%)	7 (5.1%)	12 (8.7%)	43 (31.2%)	138
89금성	22 (16.7%)	0	0	0	26 (19.7%)	13 (9.8%)	18 (13.6	53 (40.2%)	132
89월평	27 (25.5%)	1 (0.9%)	0	1 (0.9%)	22 (20.8%)	4 (3.8%)	4 (3.8%)	39 (36.8%)	106

59 금성의 경우 마을생활의 장점으로는 상부상조한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인심이 좋다는 응답이 12.3%였다. 89 금성의 경우에는 상부상조한다는 응답이 19.7%였으며 인심이 좋다는 응답이 16.7%였다. 그러나 89 월평에서는 인심이 좋다는 응답이 25,5%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상부상조한다가 20.8%였다.

그러나 세 경우 모두 30% 이상의 응답자가 무응답으로 무관심을 나타내었으며, 장점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의사를 보인 사람도 각각 8.7%, 13.6%, 3.8%나 되었다.

7) 마을생활의 단점

	인심이 나쁘다	빈부차이가 심하다	반상차이가 심하다	단합이 안된다	기 타	없 다	무응답	계
59 금성	6 (4.3%)	0	1 (0.7%)	0	14 (10.1%)	29 (21.0%)	88 (63.8%)	138
89 금성	2 (1.5%)	3 (2.3%)	0	15 (11.4%)	26 (19.7%)	29 (22.0%)	57 (43.2%)	132
89 월평	4 (3.8%)	1 (0.9%)	1 (0.9%)	3 (2.8%)	26 (24.5%)	16 (15.1%)	55 (51.9%)	106

세 경우 모두 마을생활의 단점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하지 않았다. 오히려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9 금성, 89 금성, 89 월평의 순으로 각각 21.0%, 22.0%, 15.1%나 되었고, 무응답도 각각 63.8%, 43.2%, 51.9%나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대체적으로 마을내 인간관계에서 큰 불만이 없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8) 마을 지도자의 장점

	인품이 좋다	많이 안다	경제적 이유가 있다	통솔력이 있다	마을일에 힘쓴다	책임감이 있다	기타	무응답	계
59 금성	23 (17.4%)	4 (2.9%)	0	14 (10.1%)	16 (11.6%)	1 (0.7%)	7 (5.1%)	72 (42.1%)	138
89 금성	16 (12.1%)	2 (1.5%)	4 (3.0%)	4 (3.0%)	17 (12.9%)	1 (0.8%)	1 (0.8%)	87 (65.9%)	132
89 월평	7 (6.6%)	1 (0.9%)	2 (1.9%)	6 (5.7%)	9 (8.5%)	0	0	81 (76.4%)	106

마을 지도자의 장점으로 59 금성에서는 인품이 좋다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다음으로는 통솔력이 거론되었다. 89 금성에서는 마을 일에 힘쓴다가 12.9%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인품이 좋다가 거론되었다. 89 월평은 89 금성과 유사하게 마을 일에 힘쓴다는 항목과 인품이 좋다는 항목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세 경우 모두 무응답이 각각 42.1%, 65.9%, 76.4%로 많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이는 마을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나 마을 지도자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특히, 제주도의 마을은 육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등한 인간관계가 강조되어 차별적인 지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응답경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응답자의 성을 기준으로 보면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무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마을의 공식적인 일에 적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9) 30년 이전에 비한 생활 수준

	퍽 나아졌다	좀 나아졌다	그래로다	좀 못해졌다	훨씬 못하다	무응답	계
59 금성	5 (3.6%)	35 (25.4%)	39 (28.3%)	41 (29.7%)	13 (9.4%)	5 (3.6%)	138
89 금성	112 (84.8%)	10 (7.6%)	4 (3.0%)	2 (1.5%)	0	4 (3.0%)	132
89 월평	88 (83.0%)	11 (10.4%)	2 (1.9%)	2 (1.9%)	1 (0.9%)	2 (1.9%)	106

30년 전과 비교해서 생활수준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적 차이에 따른 응답차이가 두드러졌다. 59 금성의 경우에는 좀 못해졌다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그대로다 라는 응답이 28.3%, 좀 나아졌다가 25.4%였다. 그러나 89 금성과 89 월평에서는 퍽 나아졌다는 응답이 각각 84.8%와 83.0%로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해방 이전과 1959년 사이의 생활수준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는데 비해, 1959년과 1989년 사이의 생활수준 차이는 상당히 켜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7. 기 타

1) 묘지기

	없 다	있 다	모르겠다	계
59 금성	113(81.9%)	2(1.4%)	23(16.7%)	138
89 금성	124(93.9%)	0	8(6.1%)	132
89 월평	100(94.3%)	0	6(5.7%)	106

59 금성의 경우 묘지기가 있다는 가구가 두 가구 있었으나 89 금성과 89 월평에서 묘지기가 있다는 가구는 하나도 없었다. 이는 두 마을이 모두 반촌은 아니라는 해석으로 귀결될 수 있다.

2) 아들의 교육 가능 정도

	비해당	못시킨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이상	무응답	계
59 금성	0	3 (2.2%)	24 (17.4%)	20 (17.4%)	40 (29.0%)	38 (27.5%)	3 (2.2%)	10 (7.3%)	138
89 금성	2 (1.5%)	0	0	7 (5.3%)	37 (28.0%)	46 (34.8%)	22 (16.7%)	18 (13.6%)	132
89 월평	2 (1.9%)	0	0	0	18 (17.0%)	48 (45.3%)	16 (15.1%)	22 (20.7%)	106

59 금성의 경우는 아들을 고등학교와 대학까지 시키겠다는 응답이 각각 29%와 27.5%로서 가장 많았다. 89 금성의 경우는 대학교까지 시키겠다는 경우가 34.8%로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까지 시키겠다는 경우로 28%였다. 그만큼 교육열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월평의 경우는 45.3%의 응답자가 아들을 대학까지 교육시키겠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교육열을 보여주었다.

3) 딸의 교육 가능 정도

59 금성의 경우는 딸을 국민학교까지 교육시킬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2%로서 가장 높았다. 반면 89 금성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

교가 각각 34.8%와 29.5%로서 가장 높았다. 딸의 경우도 교육열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89 월평의 경우는 딸의 경우도 대학까지 시키겠다는 경우가 37.7%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고등학교까지 시키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비해당	안시킨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이상	무응답	계
59 금성	0	5 (3.6%)	38 (42.0%)	29 (21.0%)	26 (18.8%)	9 (6.5%)	3 (2.2%)	8 (5.7%)	138
89 금성	1 (0.8%)	0	0	8 (6.1%)	46 (34.8%)	39 (29.5%)	21 (15.9%)	17 (12.9%)	132
89 월평	2 (1.9%)	0	0	1 (0.9%)	25 (23.6%)	40 (37.7%)	14 (13.2%)	24 (22.7%)	106

그러나 아들의 경우와 비교하면 세 경우 모두 딸에 대한 교육열이 낮아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화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시장 이용자

	남 편	부 인	기 타	무응답	계
59 금성	1(0.7%)	118(85.5%)	15(10.9%)	4(2.9%)	138
89 금성	2(1.5%)	106(80.3%)	18(13.6%)	6(4.5%)	132
89 월평	0	96(90.6%)	10(9.4%)	0	106

세 경우 모두 시장을 주로 가는 사람은 주부였다. 세 경우 모두 시장 이용자가 주부라고 응답한 경우가 80%를 넘었다. 이는 가사에서 부부간 성역할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었음을 의미한다.

5) 지위의 지표

	직 업	학 식	돈	가 문	명 망	재 주	기 타	무응답	계
59금성	10 (7.2%)	51 (37.0%)	22 (15.9%)	4 (2.9%)	20 (14.0%)	18 (13.0%)	0	13 (9.4%)	138
89금성	9 (6.8%)	19 (14.4%)	23 (17.4%)	2 (1.5%)	13 (9.8%)	2 (1.5%)	21 (15.9%)	43 (33.6%)	132
89월평	8 (7.5%)	23 (21.7%)	21 (19.8%)	7 (6.6%)	8 (7.5%)	1 (0.9%)	3 (2.8%)	35 (33.0%)	106

59 금성의 경우에는 지위의 지표로 학식을 가장 많이 들었고 다음으로는 돈과 명망, 재주 등을 들었다 그러나 89 금성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한 지위의 지표로 인식되고 있고 다음으로는 학식과 명망을 들었다. 89 월평의 경우 역시 학식과 돈이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1959년과 1989년을 비교하면 학식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돈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게 인식되고 있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1989년의 경우 무응답의 비중이 1/3 정도 되고 있다. 이는 지위 자체가 더 이상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6) 신문/잡지의 구독 여부

	안 본 다	본 다	무응답	계
59 금성	116(84.1%)	19(13.8%)	3(2.2%)	138
89 금성	87(65.9%)	43(32.6%)	2(1.5%)	132
89 월평	61(57.5%)	44(41.5%)	1(0.9%)	106

59 금성의 경우 신문이나 잡지를 정기구독하는 사람은 13.8%에 불과하였으나 89 금성과 89 월평에서는 신문이나 잡지 구독자가 각각 32.6%와 41.5%였다. 이는 신문구독자의 수가 그만큼 늘어나서 마을 외부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Ⅲ. 요약과 결어

1989년에 실시된 우리의 연구는 질문지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었다. 1959년도의 설문지와 비교를 통해서 30년 동안의 변화를 보기 위한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양화된 자료를 가급적 그대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질적 접근에 의한 자료들 중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양화된 자료를 보조하는 선에서 제시

하였을 뿐이다. 1959년도에 제작된 설문지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계급지향적인 것들도 있었고, 질문 자체가 1980년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 부분과 기왕에 발표된 질적인 연구의 결과들인 다른 부분들과의 결합 속에서 제주농촌과 그 지역의 변화라는 실재가 더욱 가깝게 근접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0년 동안에 일어난 제주 농촌의 변화를 주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구는 소규모화 되었고, 가족관계는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혼인의 경우 대체로 만혼의 경향을 보이면서, 딸(여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향이 남자보다도 더 두드러지는 변화상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경제적인 여건은 좋아졌다는 주민 스스로의 인식과 지표상의 변화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농가의 자립도는 상당히 떨어졌다는 점이 지적된다. 즉 농가의 자립적인 경제활동은 이제 완벽하게 시장경제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황이고, 농업의 상업화에 의한 적응전략이 농민들에 의해서 강도높게 추진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적응전략 자체가 국가 주도의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친족조직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소원한 면은 있지만, 제사라는 것이 친족(특히 가까운 친족들)간의 중요한 결속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문화를 구성하는 개념도식으로서 기술과 조직 그리고 관념이라는 틀을 설정하고, 문화변동이라는 시각을 본연구의 결과에 적용시켜볼 때, 다음과 같은 간략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도의 농촌에서 나타난 기술부문의 변화 즉 농업기술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환금작물이 도입되었고 영농방식이 기계화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조직부문에서 보이는 변화는 가족의 크기가 소인수화 되었고, 근린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계가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동네라는 사회조직 자체가 외부와의 접촉이 빈번해진 것도 조직 측면의 큰 변화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관념부문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판단이 선다. 특히 기술이나 조직의 변화와 비교해볼 때, 관념부문의 변화는 극히 미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문화변동에 있어서 관념부문이 상대적으로 보수적

이라는 일반론을 적용할 수 있고, 문화변동에 있어서 부문별 층화현상을 지적할 수도 있다. 제주도 농촌에서 일어난 문화변동의 부문별 층화현상을 일별하면, 기술부문의 변화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조직, 그리고 관념부문은 변화의 정도가 극히 적었다. 변동의 속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부문별 층화현상은 보편적인 추세가 아닐까 한다.

지난 30년간 일어난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가늠해볼 때, 우리는 미래를 위한 약간의 실용적인 제안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차세대의 정주를 위한 기반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가 미래설계의 관건이다. 왜냐하면, 89 월평에서 관찰되듯이, 농민들은 항상 경제적인 합리성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고, 그러한 판단에 미루어 볼 때, 가구단위의 정주가능성과 경제적 경쟁력의 확보라는 문제가 농민들의 가장 심각한 관심이다. 일차산업의 회복가능성, 일차와 이차 및 삼차 산업의 복합에 의한 인구부양능력의 제고 등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주계획의 일환일 수 있다.

89 금성에서 관찰된 것처럼, 인구과소화는 끝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세대 정주계획의 여하에 따라서 얼마던지 유턴(U-turn: 도시로 이출했던 사람들이 원취치로 돌아오는 경향을 말함)이나 제이턴(J-turn: 도시로 나갔던 사람들이 원래의 촌락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연고가 있는 인근의 소도시로 회귀하는 경향을 말함)의 기회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민들은 그러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기회만 주어지면 마을내에는 언제든지 적정한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촌 정주계획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들의 미래지향적 설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될 것인지가 향후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동시에 문화변동의 인식틀에서 지적된 바에 의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층화현상을 보이는 부문별의 균형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029년에 동일한 또는 유사한 설문지에 근거해서 재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고창훈
1984 "제주문화의 사회과학적 이해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1: 19－46.

신행철
1981 "한국농촌지역사회의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논문집』 12.
1982 "도민의식으로 본 제주개발의 성격과 문제점", 『제대학보』 23.

신행철 · 김태보
1980 "제주도민의 사회 · 문화 의식상의 전통성", 『제주대학논문집』 11.

이만갑
1960 『한국농촌의 사회구조』, 서울: 한국연구도서관.
1970 『농촌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전경수 · 한상복
1990 "지역개발의 통합모형과 주민참여", 『제주도연구』 7: 183－268.
1991 "제주도 촌락의 민속지적 약보", 『한국의 사회와 역사』, Pp. 314－380, 서울: 일지사.

한상복
1984 "제주도 종합학술조사(1959) 개요", 『제주도연구』 1: 293－322.

스즈끼 에이타로
1944 『조선농촌사회 답사기』, 동경: 시조사.
1977 『조선농촌사회의 연구』, 동경: 미래사.

Foster, George et al.
1979 *Long-Term Field Research in Social Anthropology*, New York: Academic.

Lewis, Oscar
1951 *Life in a Mexican Village*, Urbana, Il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0 *Tepoztla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Redfield, Robert
1930 *Tepoztl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0 *A Village that Chose Progress: Chan Kom Revisit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edfield, Robert and Alfonso Villa Rojas
1934 *Chan Kom*, Washington, D.C.: Carnegie Institute of Washington.

Socioeconomic Change of the Rural Villages in Cheju Islands : 1959~1989

Chun, Kyung-soo
Han, Sang-Bok
Dep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has been focusing on the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rural villages in Cheju Islands and finding out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the changes. There was a survey research done at the year of 1959 and we fortunately keep the questionnaires done through interviews at that time. The result of the survey has never been analyzed. We use these data to understand the socioeconomic situations of '50s in the area. And we have also accomplished another survey research employing the same style of questions for the '80s. By comparison. between these two sets of questionnaires, we could review continuity and changes with the 30years difference in terms of cultural change.

This kind of the longitudinal research could suggest th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community development in the specific areas as well as for evaluation of the former changes and development project introduced.

We pick up two villages in the islands : one from the northern region and another one from the southern. We have also done a slightly deep level of the qualitative research by the survey one in order to support and examine the outcome of the questionnaires.

Let us eptomize the results: the average size of the household has been much smaller while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members seems to be almost continuous. The age of the first marriage has

been delayed. This change has happened more greatly to the female side in comparison with the male one. Residents has been equipped with the idea of which the general level of the living standards has been better than before while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individual household has been much more dependent to the outside. Self-sufficiency has been greatly dominated by the market economy in general and this trend of course introduced by the development programme initi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the situation of the commercializing the peasant agricultural sector. The integrity among the kin members is rather weaker. However, the ancestral ceremonies are still functioning the key role to congregate among the family and kin members.

Generally speaking, the technology sector has been greatly changed by looking at agricultural activities in which the cash crop has been introduced and relatively well transplanted alongside the mechanization of the farming methods. In terms of the sector of (social) organization, the size of each family has been smaller while the neighborhood relations like the rotating credit association has been greatly changed by means of purpose and target. However, the ideology sector has not been experienced a great deal of change in comparison with both of technology and organization. Ideology sector of the residents in the islands should be claimed as still very much conservative. Therefore we could point out the sectorially stratified changes among different sectors like technology, organization, and ideology of which are main components of a culture.

We would like to suggest a kind of utilitarian mea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project to be being applied for the Cheju Islands. People want to live in the villages if the settlement project should be well organized and the SOC for the village level could be

improved. Peasants have always been rationalized through their living and producing and marketing their products. They are looking forward to meeting with the national level of the various kinds of development projects soliciting their felt-needs.

별지 I : 1959년도 調 査 票

1959年 7月

濟州島綜合學術調査團 社會學班

Resp. No.	

調査日字 : ____月____日

調 査 員 : _____

調 査 地 : _____郡_____ 面_____里_____班

〈첫 人事의 要領〉

1. 저는 (大學)에서 나온 學生입니다.
2. 이번에 濟州島 綜合學術調査團에서는 여러분들의 生活에 對해서 硏究를 하게 되었읍니다.
3. 여러분의 사시는 모습을 옳게 알고 조금이라도 좋게 하기 爲해서 이러한 硏究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 硏究는 순전히 공부하기 爲한 것이며 稅務署나 경찰 같은 官廳과는 아무 關係도 없읍니다.
5. 여러분의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도 않고 모두가 數字로 나오니까 安心하시고
6. 여쭙는 것이 대단한 것은 없으니 바쁘신데 괴로우시겠지만 잠간동안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읍니다.

1. 應答者의 姓名 : _____(男, 女) (_____才)
   結婚與否 : (旣, 未, Widower, Widow, 別居)
   敎　育 : _____
   宗　敎 : _____
   出 生 地 : _____

世帶主：_____

2. 家族關係：

2a.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出嫁 및 分家한 子女와 그 家族은 除外)

① _____명

(그 中에서)

② 자녀 _____명

③ 親戚 _____명 (누구 : _____ _____ _____)

④ 姻戚 _____명 (누구 : _____ _____ _____)

⑤ 親戚이나 姻戚關係 없는 사람 :

_____명 (누구 _____ _____ _____)

2b. 宅의 食口中에 客地에 나가 사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① 없다 _____

② 있다 _____ (몇 _____ 명)

世帶主와의 關係	現居住地	別居理由	生活費出處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 宅에서는 長男이십니까, 또는 次男이나 그 아래이십니까?

① 獨子 _____ ③ 養子 _____ ⑤ 長男 _____ ⑦ 次男以下 _____

4. 父母님께서는 살아 계십니까?

a 父 : ① 生存 _____ ② 死 _____ ③ 其他(記入) _____

b 母 : ④ 生存 _____ ⑤ 死 _____ ⑥ 其他(記入) _____

4a (生存하는 父母가 있을 경우) :

父母님은 누가 모시고 계시는지요?

a 自己(本人) _____

(自己가 모시고 있지 않으면) :

① 長男 _____ ③ 次男以下 _____ ⑤ 딸 _____

⑦ 따로사신다 _____ ⑨ 其他(누구) _____

5. 宅의 祖父님께서는 무슨 職業을 갖고 계셨는지요?

a. 農業 : ① 地 主 _____ ② 地主兼自作 _____ ③ 自作 _____
④ 自作兼小作 _____ ⑤ 小作兼自作 _____ ⑥ 小作 _____
⑦ 雇傭勞動者 _____ ⑧ 其他(무엇) _____

b. 漁業 : ① 漁業만을 했다 _____
③ 漁業을 主로 했다 _____
⑤ 漁業은 副業으로 했다 _____
⑦ 漁業은 하지 않았다 _____

c. 農業이나 漁業以外의 職業 :
없다 _____ 있다 _____ (무엇 _____)

6. 宅의 아버님께서는 무슨 職業을 갖고 계셨는지요?

a. 農業 : ① 地主 _____ ② 地主兼自作 _____ ③ 自作 _____
④ 自作兼小作 _____ ⑤ 小作兼自作 _____ ⑥ 小作 _____
⑦ 雇傭勞動者 _____ ⑧ 其他(무엇) _____

b. 漁業 : ① 漁業만을 했다 _____
③ 漁業을 主로 했다 _____
⑤ 漁業은 副業으로 했다 _____
⑦ 漁業은 하지 않았다 _____

c. 農業이나 漁業以外의 職業 : _____
없다 _____ 있다 _____ (무엇 _____)

7. 宅의 外家宅은 어디십니까? (母親結婚當時) : _____
外祖父님의 職業은 무엇이었는지요?

a. 農業 : ① 地主 _____ ② 地主兼自作 _____ ③ 自作 _____
④ 自作兼小作 _____ ⑤ 小作兼自作 _____ ⑥ 小作 _____
⑦ 雇傭勞動者 _____ ⑧ 其他(무엇) _____

b. 漁業 : ① 漁業만을 했다 _____
③ 漁業을 主로 했다 _____
⑤ 漁業은 副業으로 했다 _____
⑦ 漁業은 하지 않았다 _____

c. 農業이나 漁業以外의 職業 :

없다_____ 있다_____ (무엇 _____)

8. 結婚當時 丈人(또는 妻男)의 職業은 무엇이었읍니까?

a. 農業 : ① 地主_____ ② 地主兼自作_____ ③ 自作 _____
④ 自作兼小作_____ ⑤ 小作兼自作 _____ ⑥ 小作 _____
⑦ 雇傭勞動者_____ ⑧ 其他(무엇) _____

b. 漁業 : ① 漁業만을 했다_____
③ 漁業을 主로 했다 _____
⑤ 漁業은 副業으로 했다 _____
⑦ 漁業은 하지 않았다_____

c. 農業이나 漁業以外의 職業 :
없다_____ 있다 _____(무엇 _____)

9. 宅의 지금 職業은 무엇인지요?

a. 農業 : ① 地主_____ ② 地主兼自作_____ ③ 自作 _____
④ 自作兼小作_____ ⑤ 小作兼自作 _____ ⑥ 小作 _____
⑦ 雇傭勞動者_____ ⑧ 其他(무엇) _____

b. 漁業 : ① 漁業만을 했다_____
③ 漁業을 主로 했다 _____
⑤ 漁業은 副業으로 했다 _____
⑦ 漁業은 하지 않았다_____

c. 農業이나 漁業以外의 職業 :
없다_____ 있다 _____(무엇 _____)

d. 墓直與否 : 없다_____ 있다_____
있으면 : 全的으로_____主로_____副로_____

10. 宅에서 前에 다른 職業을 가지신 일이 있읍니까?

a. 없다_____ 있다 _____ (무엇 _____)

b. (万一 있다면) : 왜 지금의 職業으로 바꾸셨읍니까?

_____

11. 宅에서는 陸地나 都會地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a. ① 없다 _____ ③ 있다 _____

b. (있으면) 어디서 살으셨읍니까?_____

◎ 다음은 結婚問題입니다만

12. 結婚하시기 前에 宅의 夫人께서는 어디 사셨읍니까?
① 같은 部落 _____ ③ 面內 다른 部落 _____ ⑤ 郡內 다른 面 _____
⑦ 道內 다른 郡 _____ ⑨ 다른 道 _____

13. 宅에서는 누구의 紹介로 婚姻하시게 되었읍니까?
① 親戚 _____ ② 親知 _____ ③ 手冊 _____ ④ 行商人 _____
⑤ 戀愛結婚 ⑥ 其他 (무엇 _____)

14. 初婚이신지 再婚이신지요
男便 : 1. 初婚 _____ 3. 再婚 _____
婦人 : 5. 初婚 _____ 7. 再婚 _____

15. 그때 두분의 年才는 各各 어떻게 되셨읍니까?
男便 : _____ 才 (再婚일 경우에는 初婚時의 年令을 記入)
婦人 : _____ 才

16. 그러면 子女분은 몇살에 結婚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들 : _____ 살
딸 : _____ 살

17. 아드님을 結婚시키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_____ ① 父母의 마음대로 定한다
_____ ③ 父母가 定해 놓고 本人의 意思를 듣는다
_____ ⑤ 本人이 定한 다음 父母의 承諾을 받게 한다
_____ ⑦ 子女들 本人에게 맡겨 둔다

18. 따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① _____ ③ _____ ⑤ _____ ⑦ _____

19. 女子를 結婚시킬 때 다음 여러가지 조건 가운데서 꼭 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중요한 것부터 차례로 세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1, 2, 3으로 차례를 맥일것)

19a. 며누리를 보실때		19b. 사위를 보실 때
① _____	① 敎 育	① _____
② _____	② 財 産	② _____
③ _____	③ 外 貌	③ _____

④ _____	④ 才　操	④ _____
⑤ _____	⑤ 家　門	⑤ _____
⑥ _____	⑥ 健　康	⑥ _____
⑦ _____	⑦ 性　格	⑦ _____
⑧ _____	⑧ 職　業	⑧ _____
⑨ _____	⑨ 其他(무엇)	⑨ _____

20. 子女들 婚事를 定할때 宮合은 꼭 봐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꼭 봐야 한다
_____ ③ 볼 必要가 없다
_____ ⑤ 其他 _____

21. 結婚해서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읍니까?

21a. 딸만 있고 아들이 없을 때		21b. 딸도 아들도 없을때
① _____	① 소실을 얻는다	① _____
② _____	② 이혼을 한다	② _____
③ _____	③ 양자를 들인다	③ _____
④ _____	④ 데릴사위를 얻는다	④ _____
⑤ _____	⑤ 없는대로 살아간다	⑤ _____
⑥ _____	⑥ 그밖에(어떻게)	⑥ _____

22. 事變후에 우리나라엔 과부되신 분이 많아졌읍니다. 그들이 再婚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再婚은 無條件 反對다
_____ ③ 子女가 있으면 再婚은 안하는게 좋다
_____ ⑤ 꼭 해야할 形便이면 해도 좋다
_____ ⑦ 언제든지 再婚은 찬성이다
_____ ⑨ 其他(기입 : _____)
_____ ⓪ 모르겠다

23. 요즘은 離婚이 많아지는 모양인데 離婚은 찬성하십니까? 또는 反對하십니까?

_____ ① 反對한다
_____ ③ 贊成한다

_____⑤ 모르겠다
_____⑦ 其他(기입 : _____)

24. 財産이 있다면 子女에게 어떻게 물려 주시겠읍니까?
_____① 長子에게만 준다
_____② 長子에게 다른 아들보다 많이 준다
_____③ 아들에게만 公平히 나눈다
_____④ 長子에게 많이 주고 아들 딸 다 준다
_____⑤ 아들이건 딸이건 다 公平히 나누어 준다
_____⑥ 아무도 주지 않고 제 힘으로 살게 한다
_____⑦ 기타(기입 :_____)

25. 宅에서는 父母님에게서 물려받은 財産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_____
② 없다 _____

25a. 宅의 父母님은 어떻게 財産을 分配하셨읍니까?
_____① 長子에게 다른 아들보다 많이 주었다
_____③ 長子에게 좀 많이 주고 아들 딸 다 주었다
_____⑤ 아들, 딸 다 公平히 나눠주었다

26. 子女는 어디까지 工夫시켰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안시킨다 ② 國民學校 ③ 中學 ④ 高等 ⑤ 大學 ⑥ 그以上
a. 아들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b. 딸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6a. 그런데 실지로 집안 形便을 생각하면 얼마나 시킬실 수 있읍니까?
① 안시킨다 ② 國民學校 ③ 中學 ④ 高等 ⑤ 大學 ⑥ 그以上
a. 아들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b. 딸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7. 아드님은 장차 무슨 職業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長男(무슨 직업)_____
次男以下 _____

28. 宅에서는 지금 職業에 滿足하고 계십니까?
a._____ 滿足하고 있다

_____滿足하고 있지는 않지만 할 수 없다
_____滿足하고 있지 않다
_____其他 (_____)

b. (滿足하고 있지 않으면) : 무슨 職業을 願하십니까?

_____

◎ 그 다음엔 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여쭈워 보겠읍니다.

29. 宅에서는 祭祀를 지내십니까?
① 지낸다 _____ ③ 안지낸다 _____

29a. 큰댁에서 지내는 祭祀에 參席은 하십니까?
⑤ 參席한다 _____ ⑦ 參席안한다 _____

30. 宅에서는 祭祀지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贊成, 反對와 그 理由)

31. 宅에서는 門中이 한자리에 다 같이 모이는 때가 一年에 몇번이나 되십니까?
a. 무슨일로 _____ b. 몇번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2a. 宅에서는 살림살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제일먼저 도움을 請하십니까?
① 이웃____ ② 친구____ ③ 친척____ ④ 그 밖에(누구)____

b. 子女의 婚事에 關해서 議論하는 일은 누구에게 제일먼저 하십니까?
① 이웃____ ② 친구____ ③ 친척____ ④ 그 밖에(누구)____

33. 宅에서는 어떤 契에 드셨읍니까?

34. 宅에서는 水利組合, 敎會같은 團體에 드신분이 있으십니까?

團 體 名	參 加 者	職 責	團體에 對한 態度如何

35. 宅에서는 普通 누가 市場出入을 많이 하십니까?

① 男便 _____ ③ 婦人 _____ ⑤ 其他(누구) _____

35a. 市場에는 大槪 무엇하러 가시는지요?

파는 물건	사는 물건	기 타 (무 슨 일)

36. 宅에서는 지난 一年동안 이 마을에서 몇번 먼 곳에 가보셨읍니까? 그것은 대개 무슨 일로 가셨는지요?

30里에서 50里以內 _____ 번 用務 _____

50里에서 100里以內 _____ 번 用務 _____

100里以上 _____ 번 用務 _____

37. 이 面에서는 전에 兩班이었던 분과 아니었던 분 사이에 서로 꺼리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대개 어떤 点에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8. 우리나라 農村에서는 앞으로 그런 差別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없어지지 않는다

_____ 없어져도 相當한 時間이 걸린다

_____ 얼마 안가서 없어진다

39. 宅에서는 그런 差別이 必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絶對로 必要하다

_____ 조금 必要하다

_____ 될 수 있으면 없애는게 좋다
_____ 絶對로 없애야 한다
_____ 其他(　　)

40a. Estimation of status : _____

b. Actual status : _____ (記入하지 말것)

41. 宅에서는 이 部落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사는데(人間關係)에 있어서 좋은 点은 무엇이고 고쳐야할 点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좋은 点 _____ b. 고쳐야 할 点 _____

_____

_____

42. 宅에서는 누가 이 部落이 잘 되도록 꾸려나갈만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름 _____

그 분의 어떤 点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a. _____

b. _____

c. _____

43. 解放以後 宅에서는 전보다 生活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퍽 나아졌다
_____ 좀 나아졌다
_____ 그저 그대로이다
_____ 전보다 좀 못해졌다
_____ 훨신 못해졌다

44. 사람들이 잘살지 못하는 까닭은 대개 다음의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중 셋만 들어 주십시오.

_____ 財產의 밑천이 없어서　　_____ 職業을 잘못 잡아서
_____ 아버지의 地位가 낮아서　　_____ 부지런하지 않아서
_____ 좋은 연줄이 없어서　　_____ 남과 잘 사귀지 못해서
_____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_____ 運이 나빠서
_____ 其他(무엇 _____)

45. 世上에서 사람들의 地位가 높다든가 낮다든가 하고 말합니다만 그것은 보통 무엇으로 定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적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것 부터 차례로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職業이 좋다　　_____ 家門이 좋다
_____ 學識이 많다　　_____ 名望이 높다
_____ 돈이 많다　　_____ 재주가 좋다
_____ 其他(무엇　　)

46. (農事를 조금이라도 짓는 이면) :
宅에서는 논밭이나 그外 家畜같은 것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 位土(또는 名義上 所有는 別途로)

a. 논 _____ 坪　　논 _____ 坪
b. 밭 _____ 坪　　밭 _____ 坪
c. 果樹(무엇) _____ (몇 株) _____
(무엇)_____ (몇 株) _____
d. 家畜(무엇) _____ (몇마리) _____
(무엇)_____ (몇마리) _____
(무엇)_____ (몇마리) _____
e. 其他(무엇) _____ (얼마) _____

46a. (漁業에 從事하고 있는 이면) :
宅에서는 배나 그물 같은 것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a. 배 動力船_____台　　無動力船 _____台
運搬船 _____台
b. 그물(무엇)_____ (몇개)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c. 水產品製造工場 : 없다 _____ 있다 _____
d. 其他(무엇)_____ (얼마)_____

47. 宅에서는 그럼 一年 통털어서 收入이 얼마나 되십니까?
a. 農事에서 秋收한것 : ① 쌀 _____ HW
② 雜穀 _____ "

③ 채소 _____ 〃
④ 家畜 _____ 〃
⑤ 果樹 _____ 〃

b. 農事以外에서 : (漁業) _____ HW 其他 _____ HW
c. 合 計 : _____ HW

48. 그러면 昨年 一年동안에 살림살이에 쓰신것이 모두 얼마나 되시는지요?

a. 糧食으로 : ① 쌀 _____ HW ② 雜穀 _____ HW
b. 現金으로 : _____ HW
c. 合 計 : _____ HW

49. 宅에서는 지금 빚을 얼마나 지고 계십니까?

	額數(現金, 現物)	利 子	債權者 居住所	職 業	關 係	原 因
1.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4.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注意

① 債權者의 居住所는 같은 部落, 面內, 郡內, 郡外로 하고 特히 都市는 地名을 밝힐 것

② 關係는 親戚, 親知, 事業關係等으로 區分할 것.

50. 이面에 사는 사람들의 生活程度를 다섯층으로 나누었을 때 宅에서는 다음 어디에 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上 _____ 下의上
_____ 中의 上 _____ 下의下
_____ 中의 下

51. 宅에서는 新聞이나 雜誌 같은 것을 보십니까?

① 안본다 _____
③ 본 다 _____ 新聞 (무엇 _____)
雜誌 (무엇 _____)

별지 Ⅱ : 1989년도 조 사 표

1989年 月

제주도 학술 조사단

세대주 성명 : _____

주 소 : _____

조 사 자 : _____

조 사 일 자 : _____

일련번호	
분류번호	

〈가구조사표〉

번호	성 명	호주와의 관계	성별	년령	교육정도	직 업	동거여부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응답자의 성명 : (남·여) (세)
   결혼여부 : (기혼, 미혼, Widower, Widow, 별거)
   교 육 :
   종 교 :
   출생지 :
   세대주 :
2. 가족관계
   2a.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출가 및 분가한 자녀와 그 가족은 제외)
   ① 명
   ② 자녀 명
   ③ 친척 명(누구 :)
   ④ 인척 명(누구 :)
   ⑤ 친척이나 인천관계 없는 사람
   명 (누구 :)
   2b. 댁의 식구중에 객지에 나가 사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① 없다
   ② 있다 (몇 명)
   년령 교 육 세대주와의 관계 현거주지 별거이유 생활비출처

3. 댁에서는 장남이십니까, 또는 차남이나 그 아래이십니까?
   ① 독자 ② 양자 ③ 장남 ④ 차남이하 ⑤ 기타(무엇)
4. 부모님께서는 살아 계십니까?
   a. 부 : ① 생존 ② 사망 ③ 기타(무엇)
   b. 모 : ① 생존 ② 사망 ③ 기타(무엇)
   4a. (생존하는 부모가 있을 경우) :
   부모님은 누가 모시고 계시는지요?
   a. 자기 (본인)
   (자기가 모시고 있지 않으면) :

① 장남　② 차남이하　③ 딸
④ 따로사신다　⑤ 기타(누구)

5. 댁의 조부님께서는 무슨 직업을 갖고 계셨는지요?
   a. 농업 : ① 지주　② 지주겸자작　③ 자작
   ④ 자작겸소작　⑤ 소작겸자작　⑥ 소작
   ⑦ 고용노동자　⑧ 기타(무엇)
   b. 어업 : ① 어업만을 했다
   ② 어업을 주로 했다
   ③ 어업은 부업으로 했다
   ④ 어업은 하지 않았다
   c. 농업이나 어업이외의 직업 :
   없다　있다　(무엇　)

6. 댁의 아버님께서는 무슨 직업을 갖고 계셨는지요?
   a. 농업 : ① 지주　② 지주겸자작　③ 자작
   ④ 자작겸소작　⑤ 소작겸자작　⑥ 소작
   ⑦ 고용노동자　⑧ 기타(무엇)
   b. 어업 : ① 어업만을 했다
   ② 어업을 주로 했다
   ③ 어업은 부업으로 했다
   ④ 어업은 하지 않았다
   c. 농업이나 어업이외의 직업 :
   없다　있다　(무엇　)

7. 댁의 외가댁은 어디십니까?(모친결혼당시) :
   외조부님의 직업은 무엇이었는지요?
   a. 농업 : ① 지주　② 지주겸자작　③ 자작
   ④ 자작겸소작　⑤ 소작겸자작　⑥ 소작
   ⑦ 고용노동자　⑧ 기타(무엇)
   b. 어업 : ① 어업만을 했다
   ② 어업을 주로 했다
   ③ 어업은 부업으로 했다

④ 어업은 하지 않았다

c. 농업이나 어업이외의 직업 :

없다 있다 (무엇)

8. 결혼당시 본인(또는 처남)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a. 농업 : ① 지주 ② 지주겸자작 ③ 자작
④ 자작겸소작 ⑤ 소작겸자작 ⑥ 소작
⑦ 고용노동자 ⑧ 기타(무엇)

b. 어업 : ① 어업만을 했다
② 어업을 주로 했다
③ 어업은 부업으로 했다
④ 어업은 하지 않았다

c. 농업이나 어업이외의 직업 :

없다 있다 (무엇)

9. 댁의 지금 직업은 무엇인지요?

a. 농업 : ① 지주 ② 지주겸자작 ③ 자작
④ 자작겸소작 ⑤ 소작겸자작 ⑥ 소작
⑦ 고용노동자 ⑧ 기타(무엇)

b. 어업 : ① 어업만 한다
② 어업을 주로 한다
③ 어업은 부업으로 한다
④ 어업은 전혀 하지 않는다

c. 농업이나 어업이외의 직업 :

없다 있다 (무엇)

d. 묘직여부 :

없다 있다

있으면 : 전적으로 주로 부로

10. 댁에서는 전에 다른 직업을 가지신 일이 있습니까?

a. 없다 있다 (무엇)

b. (만일 있다면) : 왜 지금의 직업으로 바꾸셨습니까?

11. 댁에서는 육지나 도회지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a. ① 없다　　② 있다
b. (있으면) 어디서 살으셨읍니까?

• 다음은 결혼문제입니다만

12. 결혼하시기 전에 댁의 부인께서는 어디 사셨읍니까?
① 같은 부락　② 면내 다른부락　③ 군내 다른면
④ 도내 다른군　⑤ 다른 도　⑥ 기타
13. 댁에서는 누구의 소개로 혼인하시게 되었읍니까?
① 친척　② 친지　③ 수책　④ 행상인
⑤ 연애결혼　⑥ 기타(무엇　　)
14. 초혼인지 재혼이신지요?
남편 : ① 초혼　② 재혼
부인 : ① 초혼　② 재혼
15. 그때 두분의 연세는 각각 어떻게 되셨읍니까?
남편 :　　세(재혼일 경우에는 초혼시의 연령을 기입)
부인 :　　세
16. 그러면 자녀분은 몇살에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들 :　　살
딸 :　　살
17. 아드님을 결혼시키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① 부모의 마음대로 정한다
② 부모가 정해놓고 본인의 의사를 듣는다
③ 본인이 정한 다음 부모의 승락을 받게 한다
④ 자녀들 본인에게 맡겨 둔다.
18. 따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①　②　③　④
19. 자녀를 결혼시킬 때 다음 여러가지 조건 가운데서 꼭 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중요한것부터 차례로 세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1, 2, 3으로 차례를 매길것)

19a. 며누리를 보실때　　19b. 사위를 보실때

①	교 육	①
②	재 산	②
③	외 모	③
④	재 모	④
⑤	가 문	⑤
⑥	건 강	⑥
⑦	성 격	⑦
⑧	직 업	⑧
⑨	기타(무엇)	⑨

20. 자녀들 혼사를 정할때 궁합은 꼭 봐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꼭 봐야 한다.

② 볼 필요가 없다.

③ 기타

21. 결혼해서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읍니까?

21a. 딸만 있고 아들이 없을 때		21b. 딸도 아들도 없을때
①	① 소실을 얻는다	①
②	② 이혼을 한다	②
③	③ 양자를 들인다	③
④	④ 데릴사위를 얻는다	④
⑤	⑤ 없는대로 살아간다	⑤
⑥	⑥ 그밖에(어떻게)	⑥

22. 사변후에 우리나라엔 과부되신분이 많아졌읍니다. 그들이 재혼하는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① 재혼은 무조건 반대다

② 자녀가 있으면 재혼은 안하는게 좋다

③ 꼭 해야할 형편이면 해도 좋다

④ 언제든지 재혼은 찬성이다

⑤ 기타(기입 :　　)

⑥ 모르겠다

23. 요즘은 이혼이 많아지는 모양인데 이혼은 찬성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
① 반대한다
② 찬성한다
③ 모르겠다
④ 기타(기입 :)

24. 재산이 있다면 자녀에게 어떻게 돌려 주시겠읍니까?
① 장자에게만 준다
② 장자에게 다른 아들보다 많이 준다
③ 아들에게만 공평히 나눈다
④ 장자에게 많이 주고 아들 딸 다 준다
⑤ 아들이건 딸이건 다 공평히 나누어 준다
⑥ 아무도 주지 않고 제 힘으로 살게 한다
⑦ 기타(기입 :)

25. 댁에서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5a. 댁의 부모님은 어떻게 재산을 분배하셨읍니까?
① 장자에게 다른 아들보다 많이 주었다
② 장자에게 좀 많이 주고 아들 딸 다 주었다
③ 아들 딸 다 공평히 나눠주었다
④ 재산이 없어서

26. 자녀는 어디까지 공부시켰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안시킨다 ② 국민학교 ③ 중학 ④ 고등 ⑤ 대학 ⑥ 그이상
a. 아들 :
b. 딸 :

26a. 그런데 실지로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얼마나 시킬실 수 있읍니까?
① 못시킨다 ② 국민학교 ③ 중학 ④ 고등 ⑤ 대학 ⑥ 그이상
a. 아들 :
b. 딸 :

27. 아드님은 장차 무슨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남(무슨 직업)_____

차남이하 _____

28. 댁에서는 지금 직업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a. 만족하고 있다
만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할수 없다
만족하고 있지 않다
기타 (　　)

b. (만족하고 있지 않으면) : 무슨 직업을 원하십니까?

◎ 그 다음엔 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여쭈워 보겠읍니다.

29. 댁에서는 제사를 지내십니까?

① 지낸다　　② 안지낸다

29a. 큰댁에서 지내는 제사에 참석은 하십니까?

① 참석　　② 참석안한다

30. 댁에서는 제사지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와 그 이유)

31. 댁에서는 문중이 한자리에 다 같이 모이는 때가 일년에 몇번이나 되십니까?

a. 무슨일로 _____　　b. 몇번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2a. 댁에서는 살림살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제일먼저 도움을 청하십니까?

① 이웃　② 친구　③ 친척　④ 그 밖에(누구)

b. 자녀의 혼사에 관해서 의논하는 일은 누구에게 제일먼저 하십니까?

① 이웃　② 친구　③ 친척　④ 그 밖에(누구)

33. 댁에서는 어떤 계에 드셨읍니까?

34. 댁에서는 수리조합, 교회같은 단체에 드신분이 있으십니까?

단 체 명	참 가 자	직 책	단체에 대한 태도여하

35. 댁에서는 보통 누가 시장출입을 많이 하십니까?

① 남편 ② 부인 ③ 기타(누구)

35a. 시장에는 대개 무엇하러 가시는지요?

파는 물건	사는 물건	기 타 (무 슨 일)

36. 댁에서는 지난 일년동안 이 마을에서 몇번 먼 곳에 가보셨읍니까? 그것은 대개 무슨 일로 가셨는지요?

30리에서 50리이내 _____ 번 용무 _____

50리에서 100리이내 _____ 번 용무 _____

100리이상 _____ 번 용무 _____

37. 이 면에서는 전에 양반이었던 분과 아니었던 분 사이에 서로 꺼리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대개 어떤 점에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8.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앞으로 그런 차별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없어지지 않는다

② 없어져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③ 얼마 안가서 없어진다

39. 댁에서는 그런 차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절대로 필요하다

② 조금 필요하다

③ 될 수 있으면 없애는게 좋다
④ 절대로 없애야 한다
⑤ 기타(　　)

40. a. Estimation of status :
b. Actual status :　　(기입하지 말것)

41. 댁에서는 이 부락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사는데(인관관계)에 있어서 좋은 점은 무엇이고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좋은 점　　b. 고쳐야 할 점

42. 댁에서는 누가 이 부락이 잘 되도록 꾸려나갈만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름_____

그 분의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a.
b.
c.

43. 해방이후 댁에서는 전보다 생활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퍽 나아졌다
② 좀 나아졌다
③ 그저 그대로이다
④ 전보다 좀 못해졌다
⑤ 훨씬 못해졌다

44. 사람들이 잘살지 못하는 까닭은 대개 다음의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중 셋만 들어 주십시오.
① 재산의 밑천이 없어서　　② 직업을 잘못 잡아서
③ 아버지의 지위가 낮아서　　④ 부지런하지 않아서
⑤ 좋은 연줄이 없어서　　⑥ 남과 잘 사귀지 못해서
⑦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⑧ 운이 나빠서
⑨ 기타(무엇　　)

45. 세상에서 사람들의 지위가 높다든가 낮다든가 하고 말합니다만 그것은 보통 무엇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적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것 부터 차례로 말씀해 주십시오.

① 직업이 좋다 _____ ② 가문이 좋다 _____
③ 학식이 많다 _____ ④ 명망이 높다 _____
⑤ 돈이 많다 _____ ⑥ 재주가 좋다 _____
⑦ 기타(무엇 _____)

46. (농사를 조금이라도 짓는다면) :

댁에서는 논밭이나 그외 가축같은 것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 위토 또는 명의상 소유는 별도로

a. 논 평 논 평
b. 밭 평 밭 평
c. 과수(무엇) (몇 주)
(무엇) (몇 주)
d. 가축(무엇) (몇마리)
(무엇) (몇마리)
(무엇) (몇마리)
e. 기타(무엇) (얼마)

46a.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면) :

댁에서는 배나 그물 같은 것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a. 배 동력선 대 무동력선 대
운반선 대
b. 그물(무엇) (몇개)
c. 수산품 제조공장 : 없다 있다
d. 기타(무엇) (얼마)

47. 댁에서는 그럼 일년 통털어서 수입이 얼마나 되십니까?

a. 농사에서 추수한것 : ① 쌀 HW
② 잡곡 〃
③ 채소 〃
④ 가축 〃

⑤ 과수

b. 농사이외에서 : (어업) HW 기타 HW

c. 합 계 : HW

48. 그러면 작년 1년동안에 살림살이 쓰신것이 모두 얼마나 되시는지요?

a. 양식으로 : ① 쌀 HW ② 잡곡 HW

b. 현금으로 : HW

c. 합 계 : HW

49. 댁에서는 지금 빚을 얼마나 지고 계십니까?

	액수(현금, 현물)	이자	채권자 거주소	직업	관계	원인
1.						
2.						
3.						
4.						

* 주의

① 채권자의 거주소는 같은 부락, 면내, 군내, 군외로 하고 특히 도시는 지명을 밝힐 것

② 관계는 친척, 친지, 사업관계등으로 구분할 것.

50. 이면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정도를 다섯층으로 나누었을 때 댁에서는 다음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 하의상

중의 상 하의하

중의 하

51. 댁에서는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을 보십니까?

① 안본다

② 본 다 신문 (무엇)

잡지 (무엇)